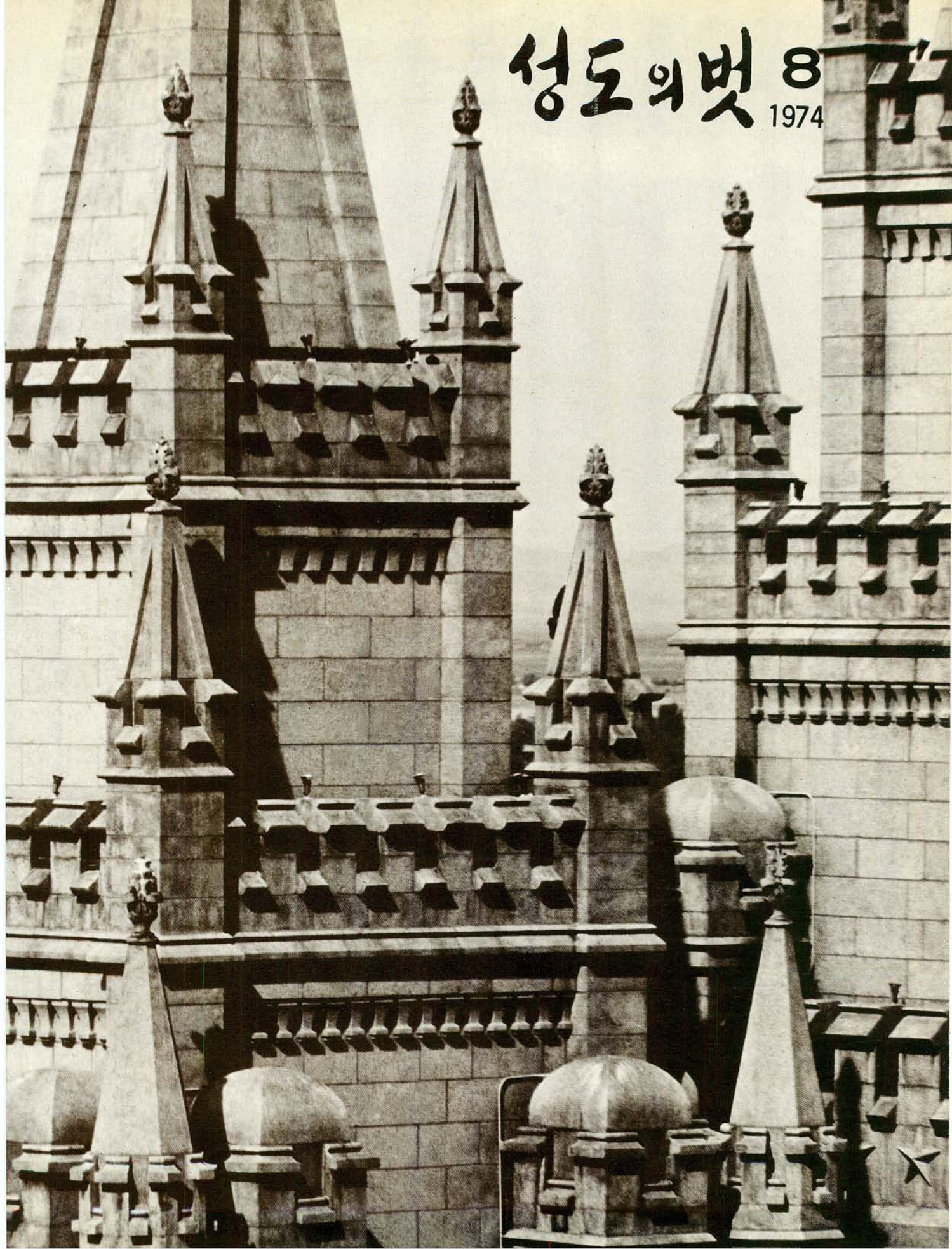


성도의 빛 8

1974



불확실성— 그리고 목적...

리차드 엘 이반스

1974년 8월호



레버링 타이슨¹⁾은 몇년 전에 젊은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앞으로 몇 개월 후나 몇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들을 인정하는 예지를 보여야 하며, 앞으로 당면하게 될 일들을 자신 있고 침착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적인 적응력을 개발시켜서 당면하게 될 미래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운명을 인도해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신뢰를 결코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항상 거의 분명히 찾아드는 피할 길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인정하고, 아울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가지고 전진해

간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위안과 힘을 주는 현명한 충고라 하겠다. 우리가 불확실이라는 이름의, 태양 위에 떠서 유동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이, 너무도 흔히 부정적인 측면을 보거나 불확실함과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 훌륭하고 유익한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불확실하며 미결된 장래를 대처해 갈 최선의 방법이다. 데오도르 티 문거²⁾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에 이르는 확실한 길은 분명하고 실천성있는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다. 다른 어떤 것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목적이란 성품, 문화, 지위, 기타 온갖 업적의 기초가 된다.” 카알라일³⁾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

와 같아, 부유하는 물전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해 정진하도록 하라” 윌리스 알 휘트니⁴⁾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있다는 한 가지의 이유만 있다면 가능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수 많은 이유를 들어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온갖 어려움과 실망이 앞을 막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학문을 닦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 얻은 업적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며, 우리를 지으시고 삶의 목적을 주신 분과 우리 자신에게 끊임 없이 유용한 도구가 되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 圖

1. 레버링 타이슨, 물렌버그 대학 학장, 젊은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2. 데오도르 티 문거 (1830-1910) 미국인 목사
3. 토마스 카알라일

4. 윌리스 알 휘트니, 제네랄 일렉트릭 연구소

벚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 일
발행일 1974년 8 월 1 일
매월 1 일 발행
통권 제 110호

발행인 겸 편집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인: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건수

순 서

불확실성—그리고 목적	리차드 엘 이반스
회복의 축복	2 엔 엘돈 태너
지지하면 손을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엘마 피 버튼
안톤 에이치 런드 부대관장	8
기록된 문자의 기원	11 휴 니블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함	16 로버트 제이 매튜스
물론일지	18
다소사람, 사울	21
친구가 친구에게	22 고든 비 힝클리
심심풀이	25
재미있는 콧수염을 가진 괴물	26 머레이 티 프린글
십일조의 축복	28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알게	29
하려 함이라	폴 에프 로알
하나님의 사업을 정결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	32 스펜서 더블류 킴블
기도의 중요성	37 엔 엘돈 태너
성신	42 매리온 지 롬니
스테이크 부장단 메시지	46
내외소식	47

고문 위원회

교내 연락 책임자,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번역 및 배부 책임자, 존 이 카
교회 잡지 책임자, 도일 엘 그린
교육자료 책임자,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정가 1 권 150 원 1 년분(송료포함) 국내 1,200원
복제불허

1974년 8 월호 성도의 벚 제10권 제 8 호

회복의 축복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회복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서부 유럽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을 때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곳 기독교 국가에 와서 당신들의 미국 종교를 전파하려고 합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는 기독교를 믿었오. 기독교를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오.” 물문경에 대해서는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또 다른 경전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소.”

우리는 온갖 성의를 다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성경은 불문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많은 기록을 담고 있지 못하며,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배도를 말해 주는 예언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유의 회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경전 연구가나 신구약을 설교하는 목사나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성경상의 예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말일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사 24:5)

아모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암 8:11, 12)

성취된 예언

신구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회복에 관한 예언과 배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 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14:6, 7)

이 성경 구절은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하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물문경이 담긴 기록을 전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되며, 그리스도의 새로운 증인인 물문경은 많은 학자가 인정하듯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구절이나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깊은 통찰력과 지식이 필요했던 구절 등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성 경

그러므로 그러한 질문을 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옛날처럼 오늘날에도 그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랑에 찬 분으로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 주신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신앙개조 9조)

신 회

아마도 말일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시는 어린 소년 요셉 스미스가 무릎을 꿇고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 지를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1974년 8월호



“현재 인간처럼
하나님도 한때 인간
이었으며, 인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된다.”

타나서서 주어진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이 거룩한 방문을 통해서 요셉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으며, 그 중 한 분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17)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그 숲을 떠나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의 아들로 그도 역시 살아 계시고 인간은 그들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업을 준비함

에 있어서 이와 같은 증거를 갖는다는 것은 꼭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매우 크셔서 우주 공간을 채우실 수도 있고 아주 작으셔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별개의 인격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마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처럼 내려 왔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침례 요한에게 들

렸던 것처럼 요셉 스미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신회는 세 개의 뚜렷한 개체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

고대의 예언자가 선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현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나를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전세로부터 이 지상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밝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지상에 오셨으며,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그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부활되며,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결합되는 문자 그대로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므로, 우리가 의를 택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전 사업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 중에는 우리 자신과 돌아가신 선조를 위한 신전 사업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 의식이 이를 모르고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공정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육의 문을 열어, 그 영들이 발전하고 주님의 복음에서 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신전에 다녀 오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영원히 인봉된다는 것과 그곳에서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영생을 얻고 하나님 왕국에서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때는 인간과 같은 존재였으며 인간도 앞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개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전을 사고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관한 아름다운 성구들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고 싶으나 여러분 스스로가 경전을 찾아서 뜻깊은 영적인 경험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값진 진주에 나오는 요셉 스미스의 시현에 대해서 읽고 하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가 가졌던 느낌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간증은 강화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풍

요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세의 이야기를 읽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값진 진주를 읽으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사탄의 역할을 알게 될 것이며 그가 만든 함정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경고의 말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서 요한 복음에 기록된 대로 구세주께서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요 10:16)라고 하신 바가 무엇을 뜻하는지 배우십시오. 여러분께서는 물론경 니파이삼서에서 미대륙의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위의 성구가 훌륭하게 설명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보인 사랑, 형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 간 요셉이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가족을 구한 사실, 모세나 사무엘, 다윗, 요나단 혹은 솔로몬의 지혜 등을 기록한 구약성서를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경전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경험이 담긴 신약성서를 통해서 훌륭한 생활의 지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경은 예루살렘성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주님으로부터 듣고 최초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초기 미대륙 백성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대하신 아름다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교리와 성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준비로써...또 후에는 조직된 교회 운영에 관해서(교성 해설)주어진 현대의 계시가 실려있습니다.

간 증

나는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이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돌아 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 말일에 회복되었으며, 이 교회는 초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조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을 관리하시는 그의 대변자요 예언자인 해롤드 비리 대관장을 통해 오늘날에도 말씀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언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한 자에게 주어진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잘 하였도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마 25:21)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해심, 용기, 힘, 소망, 결단력을 지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㉔

지지하면 손을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마 피 버튼



말일성도라면 누구나 다 “지지하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거의 매주 성찬식에서 우리는 새로운 와드 역원이나 교사를 지지하게 된다. 와드나 스테이크 혹은 총회에서 갖는 이 행사는 평범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으나 실은 매우 성스럽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교회 전 회원이 행사하는 이 만장일치의 원리가 지닌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조직된 해인 1820년 7월 주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와 회원에게 만장일치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제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모든 일은 간절히 기도와 굳은 신앙으로써 교회 회원의 만장일치로 수행되어야 하나니, 이는 너희가 신앙으로써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교성 26:2)

같은 해 9월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만장일치의 원리를 강조하셨다.

“만사는 질서있게 행해져야만 하고 또 신앙의 기도로써, 교회 회원 전체의 동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 까닭이니라”(교리와 성약 28:13)

버튼 형제는 브리검 영 대학 교회사 및 교리 담당 교수이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게 교회의 관리 정원에서 내려진 결정은 만장일치이어야 하며 모든 회원은 그러한 결정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밝혀 주셨다. (교성 107:27 참조) 주님께서는 또한 그러한 결정은 “...참으로 정의와 거룩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신앙과 유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애와 사랑으로써 이루어져야”(교성 107:30)한다고 권고하셨다. 교회의 관리 정원이냐 평의회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다른 그룹이나 조직체와는 다르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교회의 정원에서 내려지는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이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어서 소수의 의견은 무시된다. 교회에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가능하다. 주님의 영이 임재하고 ‘참으로 정의와 거룩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신앙과 유덕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애와 사랑’이 가득찬 성스러운 모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회원이 자신의 의견을 한 목적을 위해 정리하고 사사로운 편견을 버릴 때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정원에서 모든 회원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나 다수의 의견의 테두리가 확실해지면, 소수는 기꺼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게 된다. 민중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적용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와 같은 정원이니 것이다.”(교리와 성약 요해, 데저레틀랜드, 1951년 701페이지)

성도들은 그들의 지지를 묻게 되는 일들은 그들에게 발표되기 이전에 교회 지도자에게 제안되어 주님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를 신뢰하고 제의된 모든 일을 만장일치로 지지할 수 있다.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는 교회의 일은 참된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의 생각이나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도 지도자의 해석으로 처리된다면 개인의 사고나 표현의 자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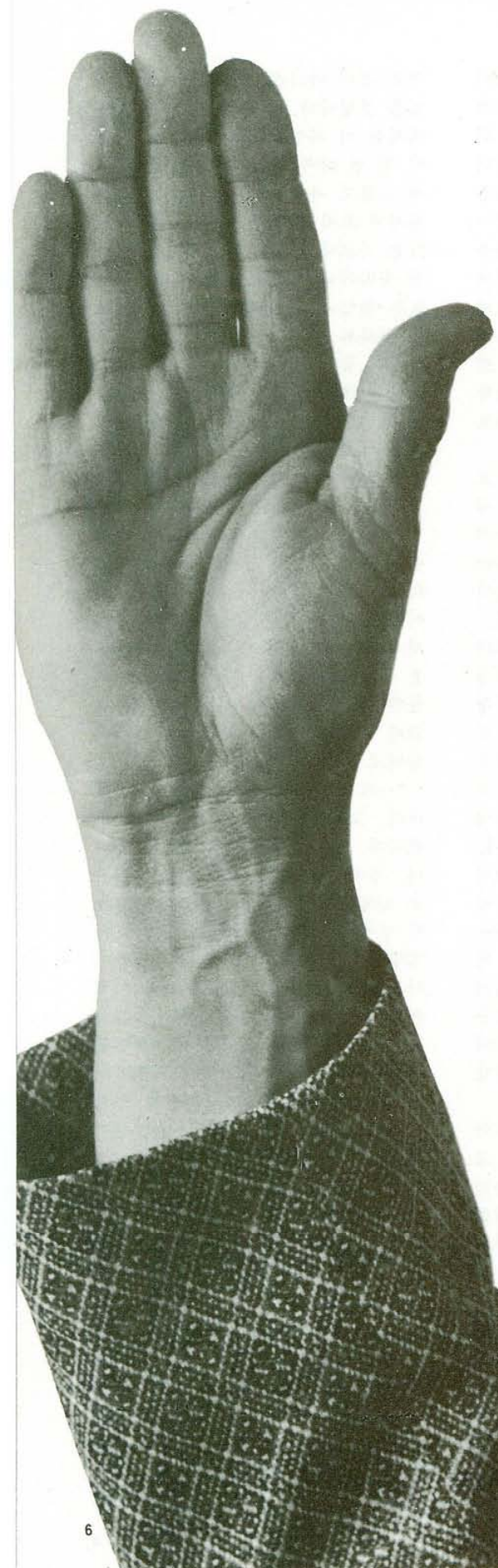
막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느끼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에게는 이 사업의 참된 정신을 그들이 한 번 터득하게 되면 어떠한 불평의 느낌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사고나 행동의 만장일치는 어떠한 속박이나 강압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성은 의로운 원리와 하나님의 영의 반응으로 전체의 동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외에는 어떠한 외적인 두려움에도 위축되지 않고 진행됩니다.”(대회 보고, 1938년 10월 116페이지)

교회의 일을 맡아 관리하는 형제들은 믿음에 근거를 두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 후에 얻어질 수 있는 순종심을 성도들이 갖게 되기를 조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은 지도자가 권고를 할 때 회원은 그들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 그것은 이해에 근거를 둔 순종에서 우리나라와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인도할 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들이 부를 때 따라야 합니다. 강압이나 속박에 못이겨 따르는 안됩니다. 우리는 기체나 연장처럼 맹목적으로 순종해서는 안됩니다. 말일성도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이렇게 행동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의 권고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말일성도가 의를 행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는데 있습니다.”(설교집, 12권 329페이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이러한 문제는 형제들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참다운 순종은 제시된 문제를 잘 이해한 다음에 오는 것이다.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은 처리되고 있는 일이나 가르쳐지고 있는 원리나 교회 지도자가 지지를 묻기 위해서 발표한 사람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다. 에라스터스 스노우 장로는 이렇게 스



스로 아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면 그들은 주님의 영으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이 백성의 지도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알려 주고자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일에 관한 일입니다. 세상 도처에서 이곳 산간 지역에 모인 말일성도는 인간을 경배하고 인간을 받들며,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에게 복종하려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들은 사람들을 잘못 택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해 줍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의사로 행하고 택할 수 있으나, 모두가 자신의 믿음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설교집 24권, 158페이지)

어떤 문제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야 할 책임이 한

개인에게 주어질 때 그는 그러한 일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그가 문제를 잘못 판단한다면 그는 그 결과를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데, 이는 자신이 주님의 교회에서 탄임자의 위치에 부름을 받은 사람과는 반대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지지 행사는 각 회원의 개별적인 문제이다. 각 사람은 스스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 있으므로, 완전히 자의로 무엇을 따르겠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강제나 강압이란 있을 수 없다. 각 사람이 자신의 확신을 표시하나 결국은 모두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물론 은 맹목적으로 지도자를 따라서는 안된다. 지도자는 각 회원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며, 주님께서는 각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물론 은 현명하게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

찰스 더블류 펜로우즈 부대관장은 교회가 만장일치의 원리를 따르는 또 다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나는 일부 교회 형제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손을 드는 것만으로 지지된 사람이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방

법으로 이들 형제들을 지지함으로써
 우리는 육신의 형제와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장막에 '가린 권세에 대해
 우리가 높은 권세를 지닌 분의 대화
 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적합한
 때에 주어지는 계시를 기꺼이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
 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교리와
 성약 등 우리가 철저히 익혀야 할 책
 을 통해서 수 많은 원리나 교리를 배
 워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교회에
 는 우리를 관리하는 지도자가 계시니
 다. 이들을 통해서 나오는 주님의 말
 씬으로 우리와 전 교회가 인도를 받
 게 됩니다. 우리가 손을 높이 들어
 그들을 지지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셔서 주실 말
 씬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
 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합당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
 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모든 회원
 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지명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손을
 치켜 들므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면 언제라도,
 성신의 영감이나 혹은 우림이나 둠임
 의 수단으로라도 주실 말씀을 받아들
 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천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높이 치켜 들므로써 영감으로,
 우림과 둠임으로, 계시로, 천사의 방
 문이나 혹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
 로 그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
 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 이렇게 지지를 한다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적절한 일이라 하겠습니
 다.”(설교집, 21권 47페이지)



안톤 에이치 런드 부대관장

약 력

안톤 에이치 런드는 1844년 5월 14일 덴마크의 엘보그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군인이었으며, 모친은 그가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나 그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다.

그의 할머니는 1853년에 침례를 받았으며 안톤은 1856년 5월 15일에 침례를 받았다. 1862년에 그는 덴마크에서 유타로 이민왔다.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는 그는 의사의 직책에 지명을 받았다. 그는 1862년 9월 23일 71일간의 여행 끝에 솔트레이크에 도착했다.

1870년 안톤은 감독의 딸인 사라 안 피터슨과 결혼했다. 그들은 9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들은 모두 훌륭히 성장했다. 안톤은 교회나 지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크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1874년 중부 유타 산페트에서 고등평의회원으로 일했고 1877년에는 스테이크 서기점 고등평의회원으로 일했고 1878년에는 주일학교 회장의 직도 맡았다.

안톤은 선교부장직을 맡아 덴마크로 되돌아 갔다. 그는 그곳에서 2년 3개월간 봉사했으며, 유타에 돌아 와서 지역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차기에 다시 재선되었다. 그는 그 직분을 맡고 있는 동안 유타 주립 농업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1888년 그는 맨타이 신전 웰스 신전장 밑에서 부신전장으로 일했으며, 1889년에는 사도가 되었고 1891년에 맨타이 신전장이 되었다.

1893년과 1896년 사이에 그는 유럽 선교부를 관리하였다.

1897년 안톤 에이치 런드는 터키 선교부를 재조직하기 위하여 에프 에프 힌츠와 함께 동양을 방문하였다.

1899년 그는 교회 역사 편찬위원이 되었다. 그는 1919년까지 주일학교 회장직을 맡았다. 1910년 그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제2보좌로 지지받았다. 그는 또한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제1보좌직도 맡아 봉사하였다.

1911년 런드 부대관장은 솔트레이크 신전장의 권한대행직을 맡았으며, 1918년에 그는 솔트레이크 신전장이 되었다.

그는 1921년 3월 2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세상을 떠났다.

“오늘과 같은 날엔 성경을 꼭 읽어야지”

오늘

안톤 에이치 런드는 4살 때 사립학교에 가서 읽기, 쓰기, 산술 등의 기초를 익혔으며 7살 때는 엘보그시에 있는 공립학교에 들어갔다. 그가 학생으로서 보인 근면성과 학업에 대한 성적은 월반을 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알아 볼 수 있다. 그는 졸업을 준비하면서도 과외로 영어, 독어, 불어를 익혔다. 11세 때 그는 전교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런드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찼었다. 할머니의 집에는 그의 삼촌의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의 삼촌은 값진 그 책을 그가 찢거나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는 종종 그에게 그 책을 빼놓지 말고 모두 읽으라고 하셨다. 할머니의 이 말씀에 힘을 입은 그는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으며, 그 성스러운 책에서 말해 주는 주요한 사건들을 상세히 알게 되었다. 거리가 온통 사순절 기념 행렬로 메인어느날 그는 ‘오늘과 같은 날엔 성경을 꼭 읽어야지!’ 하며 생각했다. 그는 그의 삼촌이 행렬 군중 속에 끼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가 평소에 즐겨 찾는 곳에 앉아 성경을 펴고 제왕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계단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고 삼촌이 그 앞에 나타났다. 그는 허락없이 성경을 꺼내온 것을 용서해 달라고 삼촌에게 빌었다. 그의 삼촌은 이렇게

1974년 8월호



대답했다. “오늘과 같은 날 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니 참 기쁘구나. 마음대로 보도록 해라.” 그때 그의 나이가 여덟이었기 때문에 그의 삼촌은 그가 상당한 분량을 읽었고,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랐다. 런드 형제는 그 때 그가 읽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읽은 성경 이야기가 모두 그의 마음 속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었다.

“런드 형제는 13세부터”

런드 형제는 13세부터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가 받은 책임은 이민은 성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소책자를 배부하며, 장로들이 모임을 갖도록 돕는 일이었다. 펠트 스테드 형제는 대회에서 첫 보고를 하면서 그를 단 위에 일으켜 세웠는데 이것이 회중 앞에 서게 된 최초의 기회였다.

그는 소책자 이외에도 항상 밀레니얼 스타지를 여러 부 가지고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읽어 주었는데, 그는 영어로 된 그 신문을 마치 덴마크 신문이라도 읽는 것처럼 유창하게 번역해 가며 들려주었다. 성도들은 즐겨 귀를 기울였으며 더욱 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밀레니얼 스타지에 실린 “반대에 대한 대답”은 당시 많은 이도교 성직자들의 공격을 받아 넘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덴마크어로 물몬에 대한 거짓 기사를 써 발행했고 그 유인물들이 미국과 영국으로 흘러들었다. 그가 부름을 받자 물몬들은 그렇게 어린 소년까지도 혹사시킨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이 말이 런드 형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너무 걱정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모두 친구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이는 그

를 그토록 알보던 사람들까지도 시간이 흐르자 그에게 찾아와 침례줄 것을 부탁하였고 런드 형제가 직접 그 의식을 행해 주기를 원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녀는 화젓가락을 집어 들고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런드 형제가 곤경을 당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선교사들이 심한 박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라도 적을 친구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때때로 심한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한 번은 저녁 모임에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가가호호를 방문하다가 어느 집에 들러서 한 여인에게 저녁에 모임이 있으니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무슨 모임이지요?” 라고 그녀가 물었다.

“물몬의 모임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심히 노하여 땅에 있던 화젓가락을 집어들고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문득 구운 게도 다리를 베고 먹는다는 옛말이 떠올라 그 집을 뛰어 나왔으나 그녀는 언성을 높여 남편을 부르며 저 “물몬”놈을 썩 죽여버리라고 소리쳤다. 그녀가 것처럼 떠드는 통에 이웃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모두 나왔다.

몇년 후 런드 형제가 유타주에서 에프라임 회사를 맡아 가지고 있을 때 한 여인이 그를 찾아와 말했다. “저를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형제님을 뵈 적이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화젓가락을 들고 형제님을 쫓아 내던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지만 자매님은 그 분이 아니신데요. 그녀의 얼굴은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걸요.”

“네 아닙니다. 전 그녀의 이웃

사람입니다. 그녀가 형제님을 쫓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그러냐고 물었지요. 그녀는 형제님이 자기를 물론 집회에 초대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나는 물론에 대해서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고, 그 모임에 참석했지요. 형제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했습니다.”

“당신을 내 상속인으로 삼겠오”

어느날 그가 구도자를 찾던 중 방앗간 주인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마침 주인은 서재에서 다른 신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약 1시간 동안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였으며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물몬이라니 참 안되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루터교 목사가 되신다면 내가 학비를 대고 당신을 상속인으로 삼겠오”

런드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부유하시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나의 충성을 돈으로는 사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두 신사는 한층 더 그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런드 형제는 그후로 그 사람이 의도한 바가 자기가 대답한 것과 일치되는지 아닌지를 꼼꼼히 생각했다. 그는 그 당시 자기의 태도가 참으로 진지했으며 그 질문은 자기를 유혹하려는 말이 아니었다고 믿었다. 그는 자기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고 느꼈다.

선교 지역에서 그가 체험한 경험은 다양했으며 흥미로웠다. 한 번은 그가 모임을 개최하는 일을 돕기 위해 어느 곳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는 심한 눈보라를 맞으면서 16키로를 걸어갔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가득 왔는데 선교사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

앉아서 “물론놈들이 오늘 우리를 속였군” 하는 소리를 들었다. 시간이 되자 모두들 웅성거리며 자리를 뜨려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그 사람은 어린 소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취죽은 듯 고요해졌다. 모임이 끝난 후 참석한 사람은 모두 그에게 와 악수를 청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때 참석했던 사람 중 여러 명이 교회로 개종해서 시온의 땅으로 이민왔다.

“배의 임시 의사”

그는 16세에 장로로 성임되어 엘보그 지부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의 5개 지부를 순방하는 장로가 되었다. 당시는 지부가 컸고 끊임없는 보살핌이 요구되는 때였으므로 이러한 직책은 상당한 책임이 따르는 직분이었다.

런드 장로는 1862년 18세가 될 때까지 선교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그후 미국 유타주로 이민을 떠났다. 그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벤자민 프랑크린호를 타고 떠났다. 배가 그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홍역이 나돌기 시작했으며 어린 아이들이 하나씩 희생되어 갔다. 배에는 의사가 없었는

데, 선장은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환자에게 약과 포도주를 주도록 되어 있었다. 씨 에이 매드슨 감독은 이 문제를 성도들 앞에 제의했으며, 그들은 런드 형제를 그 배의 임시 의사로 선출했다. 그는 약상자와 일반 질병 치료법을 다룬 책을 받았다. 그는 이 책을 열심히 읽고 말은 바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승무원과 승객의 신임을 크게 얻게 되었다. 런드 형제는 항상 바빴다. 수면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몸을 숨겨야 할 때도 있었다. 의학의 지식을 쌓지 않고 사람들의 투표로 자격이 주어진 의사에게는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안톤 에이치 런드의 이름”

나는 오늘 안톤 에이치 런드 부대관장에게 주어진 모든 조사의 말씀을 진정한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 서로 사귄 수 있는 깊은 정의를 그와 나누었다고 믿읍니다. 그는 윌포드 우드럼, 조지 큐 캐논, 조셉 에프 스미스가 교회의 대관장단으로 지지되었을 때 십이사도 정원회에 들어 왔읍니다. 그를 제외한 아홉 명과 그들의 보좌였던 다니엘

에이치 웰즈는 대관장이 구성됨에 따라 생긴 공석을 채울 사람을 종이에 적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열 사람은 서로 상의도 하지 않고 그들이 받은 종이에 안톤 에이치 런드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안톤 에이치 런드 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본 적도 없고 그가 보인 활동을 직접 보지도 못하였으며 그가 공사간에 보인 헌신적인 노력에 관해서도 알지 못하나 모든 면에서 합당한 말일성도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일본에 있는 동안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며, 그때, 나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아는 것이 많으며, 가장 빈틈없는 사람을 그의 보좌로 선택하신다면 내 판단으로는 십이사도 중에서 가장 아는 것이 많고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있는 안톤 에이치 런드 형제를 선택할 것입니다.” 런드 형제가 선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기쁨이 어땠는지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圖

☆ 런드 부대관장의 장례식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7대 대관장인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행한 조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대개는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 이 세상을 살아왔다. 다시 말해서 장차의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과도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 왔는데 이것은 오늘날 지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힘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효과를 거두며 과거에 움직여 왔고 똑같은 방법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진화론이 꾸준하고 확실하며 믿을 만하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부드럽게,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택해가듯 만사가 과학의 주시하는 눈으로 통제되어질 때 세상에서는 그러한 점에 크게 놀라움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세상에서는 위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될 것이다. 실질적이고 비미신적인 과학은 모든 유치한 두려움을 몰아냈다. 과거의 찬란 웅대했던 일이나 불가사의한 사건 혹은 미래를 보는 예언 등이 오늘날에는 신화나 환상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러나 최근에 과학자들은 먼 장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보고 그들이 본 바가 같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르며, 모든 일들이 기대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전적으로 준비를 갖추지 못한 뜻밖의 것이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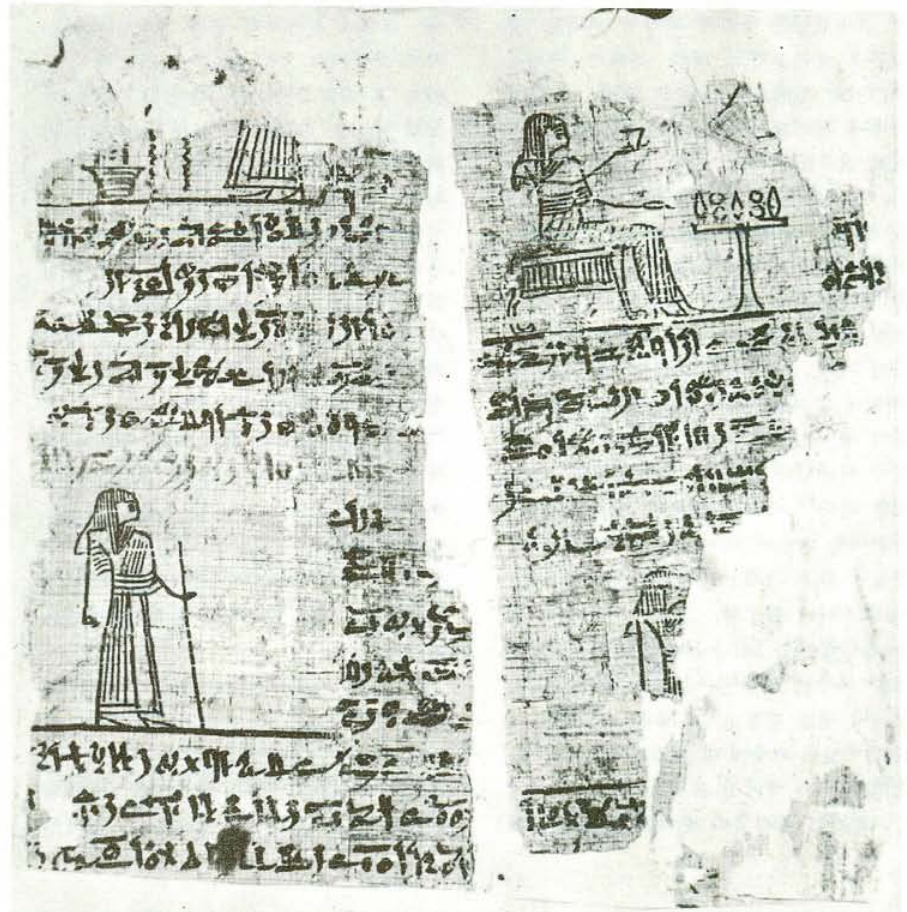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로서 앞 일과 뒷 일을 동시에 보았으며, 그와 같은 시대를 산 자기 민족에 빠진 편협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공격을 가한 두 세상을 그려 보았다. 그는 가장 담대한 방법 즉 “성령으로” 그에게 주어진 고대의 기록을 번역하여 책을 만들므로써 그가 본 과거의 세계를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본 과거나 미래의 상은 신비스러운 말로 전해지지는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까지도 이 세상에 남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고대의 책 여러 페이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말일성도들은 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밝혀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

기록된 문자의 기원

휴 니블리

제 1 부



어 남보다 배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파이와 야벳인들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님께서는 아담과 에녹과 아브라함에게 처음 밝혀 주신 것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 교회회의 회원들이 그 기록에 담긴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축복을 저버리게 됩니다.”²

요셉 스미스 당시에 고대의 기록이 정말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기록이 당시에 잊혀지지 않았으며, 그 당시 볼 수 있었던 가장 오래된 책으로는 비잔틴 시대와 거의 동시대의 것으로 활용하지 못한 중세 사본으로 보존되었던

회라이나 라틴계 고전 밖에 없었다. 히브리 성경 중 가장 오래된 것이 기원 후 9 세기에 나온 벤 아서 코덱스였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문명의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 4,000여년 전의 실제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5,000여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찾은 일과 같이 6,000여년의 역사를 캐내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과연 어떠한 문서를 찾겠는가?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보자. (1) 가장 오래된 인간의 기록에 관해 요셉 스미스가 한 말에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을까? (2) 고대인들은 이 기록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3) 그 기록의 실제의 상태가 무엇을 암시해 주나?

먼저, 요세 스미스가 옳다면 문자화된 기록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의 그것과도 비슷할 것인데, 이는 그가 우리에게 “아담의 언어로 기억의 책이 기록되었나니” (모 6:5)³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무엇에 관해서 기록을 했을까? 놀라움게도 이에 관해서 우리는 몇가지의 인용문을 들 수 있다. 그러한 기록에 의하면 왕은 세상이 창조될 때 상의된 성스러운 책에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초기의 어느 왕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현재와 앞의 일을 말해 주는 하나님의 책을 기록하는 시기이다”⁴ 그보다도 훨씬 후대의 인물인 고대왕(13대)은 이렇게 회고했다. “아름에 관해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책을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내 앞에 그 책을 펼쳐 놓아 내가 부지런히 찾아 볼 수 있게 하라.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라”⁵ 에드프 신전의 고대 도서관 창문에는 지상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책에 무릎을 꿇고 경배드리느 두 사람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으며, 그들 머리 위에 있는 상형문자는 Saiu Hw⁶ 혹은 세상을 창조한 거룩한 말씀⁷을 나타내 준다. 이집트에서 신전 건립은 그 자체가 창세를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이를 짓기 위해서는 하늘의 책에서 주어진 지시를 따라야 했다.⁸

그렇다면 문서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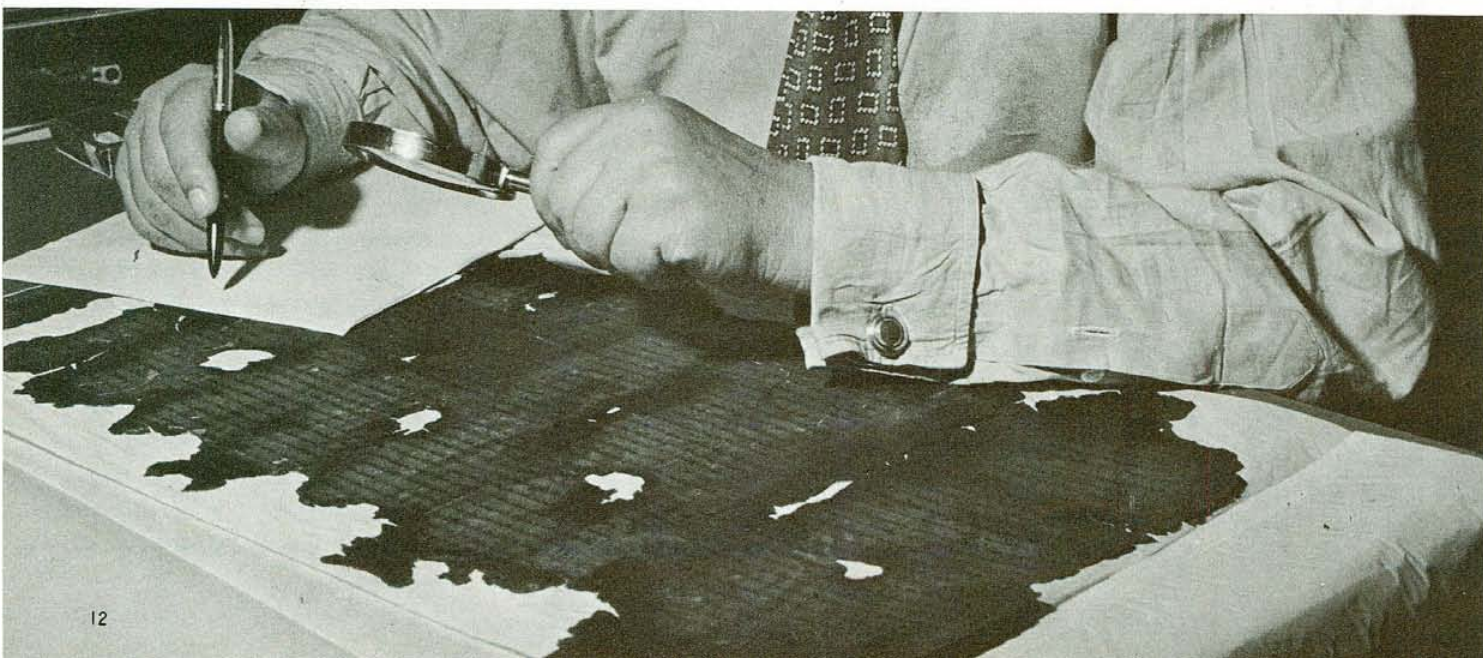
것은 무엇을 나타내 줄까?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 기록도 서서히 발전되었다고 한다면 인간이 글자를 기록하려고 했던 흔적을 나타내 보여 주는 돌이나 뼈, 토기나 나무 등이 증거물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시적인 문자 기록의 증거는 아무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사실 문자는 그 성격상 서서히 단계별 발전을 거듭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한 과정을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단 알게 되면 문자의 신비는 풀리게 된다.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는 그러한 것이 사실이었음을 나타내 준다. 앵겔바하는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전왕조의 무덤에서... 오랜 발전 역사를 보여 주는 문자가 발견되었다. ...실제로 그것은 그림 문자 시대 훨씬 이전의 것이었다...”⁹

오랜 발전 역사와 원시 그림 문자의 존재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앵겔바하의 추측임에 틀림없다. 만일 문자가 이집트에서 발전했다면 그 발전 과정은 불과 “수십년”간 계속되어 카파트¹⁰의 말대로 그후 “수천년”은 불변한 채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한 백성이 하루만에 문자의 체계를 발명해 냈다가 그것을 전혀 발전시키지 못하고 버렸다는 이와 같은 진화론적인 과정에는 무엇인가 틀린 점이 있다. 문자의 여명기였음을 알려 주는 불분명한 흔적인

전왕조의 조색판 위에는 이집트 서기들이 사용하던 고대의 잉크병을 들고 왕(나머)의 뒤를 쫓아 가는 시종과 왕의 모습이 분명하게 그려져 있어 더욱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초의 이집트 왕조의 무덤은 그들이 “상당히 발전된 문자와 파피루스를 만드는 지식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 준다...”¹¹ 첫 왕조에서 사용하던 향아리의 찌지 또는 상표에 새겨진 문자는 세련되어 있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원시적인 최초의 문자로 여겨지며, 문자상의 구성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표시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숙하고 간단하게 적은 것 같다. 그러나 에스 쇼트가 지적한 대로 사실 “그것은 알아보기 힘든 초서체인 성문자로 쓰였다”¹² 그 이유는 “상형문자가 기원전 3,000년에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 이집트인들이 최초로 발명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같은 뜻을 가진 초서체의 성문자도 이와 비슷한 초기부터 쓰였다.”¹³

이와 같은 모든 이론은 이집트에서 문자가 발전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던 이론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집트 이외의 지역에서는 어떠한 현상을 볼 수 있는가? 어디서나 초기의 문자 체계에서 이집트어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므로 역시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점에 빠지게 된다.



프랑크포트는 이렇게 말했다. “제1왕조(이집트)초에 전례없이 등장한 문자도 결코 원시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문자는 메소포타미아에까지 전해진 문자와 그 복잡성에서 정확하리만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문자 체제는 이집트가 그와 매우 유사한 문자 체제를 개발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예술과 건축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초기에 독자적으로 복잡하나 매우 일관성 있는 체제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리만큼 깊은 관계가 있다...”¹⁴ 이 두 체제는 상호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히타이트어, 초기 인도어¹⁶ 및 에라마이트어¹⁷는 물론 초기 중국어¹⁵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 보인다. 피 모델은 히브리 자모는 실제의 자모인 이집트 직선 쓰기 체제와 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상형문자가 알려지기 이전에 발전된 것으로 상당한 세력으로 지속되어 왔고 결코 다른 것으로 흡수되거나 사라지지 않았다”¹⁸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상형문자보다도 오래된 것으로¹⁹ 믿어지는 신비로운 역사 이전의 지중해 지역 자모로 기원전 2,000년 말경에 근동 지방을 갑자기 휩쓸었던 것이었다.

많은 학자들은 문자의 발명은 인류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며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이 한때에 한 곳에서 발생하였고 한 발명가의 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들은 또한 문자가 이집트나 서부셈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도 동의하고 있다.

진화론을 가정으로 내세운 이론에 따르는 일부 유명한 학자들은 원시인들이 어떻게 조잡한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간단한 생각을 기록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곳에서 인간은 조잡한 그림에서 실제 자모가 있는 글자로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발전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글자가 정말로 그런 경로를 거쳐 발생되었다면 우리는 도처에서 진화론 과정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짐승의 뼈나 돌무지에서 인간이 수 천년 동안 문자를 어떻게 발전시켜 현재의 자모를 갖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글자를 기록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어느 곳에

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일부 학자가 이론을 세우듯 문자가 진화해서 발전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없다.

글자가 그림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믿는 학자들도 “이 진화 과정의 결정적인 단계가 세상에서 이루어진 곳은 거의 없다는 점을 시인해야 한다. 문자의 체제는 그 수효가 매우 적으며 그 기원은 시간과 장소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상호 독립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인간은 언제나 그림을 그려 왔으나 그림 문자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과연 정말로 그림 문자가 있었을까? 이 도벨호퍼는 “그림 문자가 이를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일련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 고대에 기원을 두고 있다”²⁰고 말한다. 케이 세드도 “순수한” 그림 문자는 “눈으로 보아 어느 나라 말로도 읽을 수 있는 것”²¹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바로 여기서 문제는 해결된다. 진정 그림 문자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이 세상에 언어와 교육, 문화적 배경을 초월해서 보는 사람이 누구나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단일한 명각이 있을까? 세드가 상형문자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실제의 그림 문자를 찾았을 때, 그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본보기는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암석 비문이었으나, 오늘날 이를 읽거나 해석하는 사람은 없다.²²

또한 초기 이집트 그림 문자가 사용될 때 이집트인들이 순수한 자모를 갖춘 문자도 역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초기의 이집트 문자처럼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오래된 기호”로 쓰여진 바빌로니아의 평판은 고도로 도안이 되었고 추상적이어서 아무도 읽는 사람이 없다.²³ 그것이 그림 문자라고 한다면 왜 두 학자가 그것을 똑같이 읽지를 못할까? 메소포타미아는 자기 다른 발전 면을 보이기 위한 발굴 작업을 함으로써 진화론적인 문자 발전 순서를 나타내 보일 가능성이 현재로는 좀 있다고 하겠으나 이것 역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가장 오래된 문자가 상층에서 발굴되고 있으나, 과학적으로 발굴된 명각에는 기대

했던 형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많다.

문자처럼 고도로 발달된 것이 완전히 발전된 상태로 갑자기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다. 최근에 인류학자들은 문명의 “도구 이론”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 이론은 인간을 닮은 원시적인 피조물이 나무나 뼈나 돌 등을 도구로 아주 우연히 사용하게 되었고, 인간 진화의 모든 양상이 그러한 연장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데 있으며, 결국은 오늘날과 같은 문명을 이루게 하였다²⁴는 생각이다.

그러나 페트리와 같은 사람은 의미깊은 연구를 통해 인간은 새로운 도구를 알게 되는 즉시 이와 같은 좋은 연장을 사용하려는 대신 외부에서 온 새로운 연장에 대해 100%의 저항을 보여왔다고 지적하였다.²⁵ 일례로 이집트 주위에 살던 민족들은 수천년 동안 우수한 도끼를 알아 왔지만, 이를 직접 사용한 유일한 고대인들은 남미인뿐이었다.²⁶

한 백성이 다른 백성의 문자를 채택하도록 무엇이 이끌 수 있을까? 흥미로운 일은 생각은 쉽게 전달되고 채택되나 이를 채택하는 각 백성들은 모두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유욕이 강해 처음부터 다른 백성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문자를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고대 문자의 일반성과 다양성은 종교적인 성격에서 설명될 수 있다. 에이 본 무리넨은 새로운 문자는 틀림없이 새로운 종교의 도구로 등장했다²⁷고 말했고, 제이스모리엔은 인간이 이론 최대의 발명이나 발견은 인간을 영계와 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에서 출발된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²⁸ 만일 요셉 스미스가 옳았다면 책이나 기록은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은사인데, “이는 영감의 영으로 기록하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모두에게 주어졌기”(모세서 6:5) 때문이다. 사물을 기록하는 기술은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방문과 그와 나눈 대화를 기억해서 보존하게 하며 하늘의 질서에 따라 세상의 활동을 조정하도록 돕는 특별한 은사요 위대한 축복인 것이다. 예언자 요세은 “하나님이 지금 바로 바라시는 뜻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²⁹

인류 최초의 기록은 “고대인들이 하늘

의 은사로 생각한 문자 기록의 기적에 관해서”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있다.³⁰ 이집트인들은 문자의 기록이 “대제사와 서기”인 왕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신임을 뜻하며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믿었다.³¹

그러므로 신전 건립에 관한 책은 인류 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가이며 제3왕조 즉 서왕의 대신이었던 불멸의 명장 임호텔에게 하늘로부터 전해졌다고 여겨지며, 그 후 “여러 신들이 지상을 떠날 때 그 책도 하늘로 사라졌으나 후일에 임호텔이 다시 가져 내려와 뱀피스 북쪽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고 한다.³²

바빌로니아에서는 “왕을 하늘로부터 보내진 사람으로 여겨왔다. 그는 운명의 판과 사명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다음 그가 다시 내려온다... 그렇게 해서 지식이 왕에게 전달되는데, 그것은 신비로운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하늘과 땅의 위대한 신비, 감추어진 일을 다루고 있으며, 신들(혹은 신)에 의해서 감추어진 지식을 나타내 준 하나의 계시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적 계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³³ 원시 계시란 세상의 창조와 그 목적에 관한 온전한 지식이 이미 기록되었고 때때로 어떤 선택된 영에게 위임이 되었다는 것으로 말일성도들에게 매우 낮은 교리와 흡사하다.³⁴ 문자의 기원을 하늘에 두는 곳에서는 문자나 문자의 상징이 별이 있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고대의 주장과 관계가 있다. 온갖 지식을 다 담고 있고, 모든 권능을 다 전해 주는 운명의 판은 기록으로 남은 세상과 별과 성좌에 관한 예언집이다.”³⁵

만일 우리가 고대의 주장에서 구체적인 발견물로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곧 가장 오래된 기록이 대개는 신전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전 건립과 기록이 함께 등장한다는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신전이란 우주에 처한 인간의 행동을 주시하는 관측소였다.³⁶ 그곳에서 주의 깊게 하늘을 응시해 보았고 관찰한 것 중 가치가 있는 것은 기록되었음에 틀림없다. 글자, 달력, 신전 등은 자연히 함께 발전되었으며, 모두가 별과 혹성에서

오는 메시지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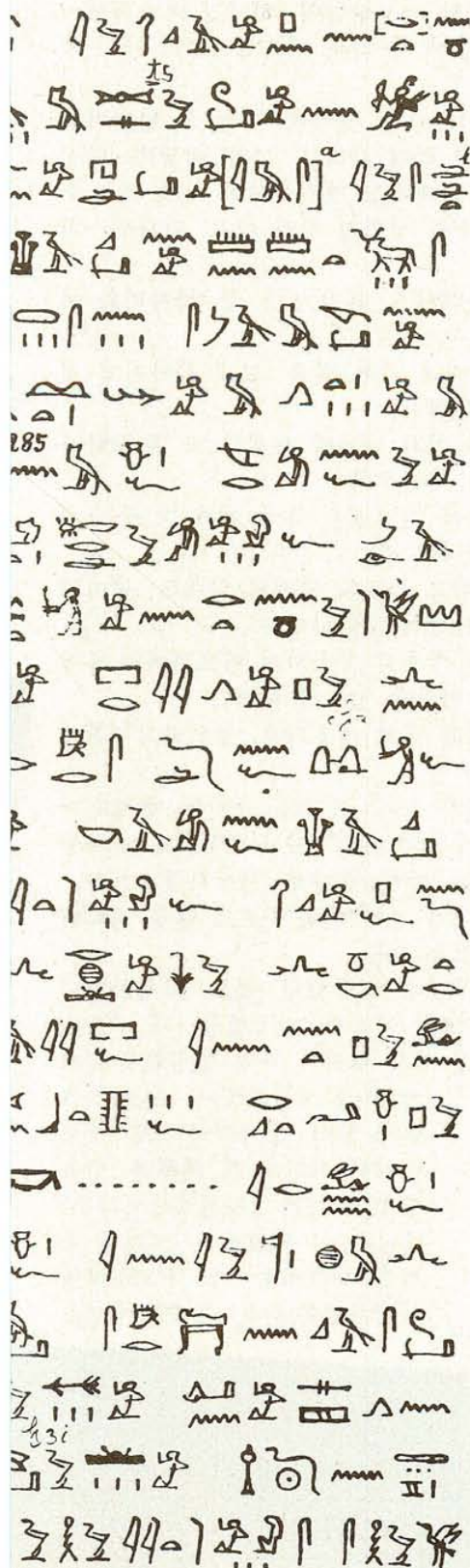
처음서부터 끝까지 고대의 기록은 제사의 손에서 다루어졌고,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사실들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전하여졌던 것이다. 우리는 전형적인 성스러운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이것을 폭로하는 자는 죽사를 면치 못할 것이니라. 너희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으라. 이 책은 생명의 집에 합당하게 등록될 서기만이 그의 작업소에서 읽을 수가 있느니라.”³⁷ “예언자만이 성스러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³⁸는 규정인 것이다. 각 문자는 그 자체가 성스러운 책에 찍힌 효과적인 봉인이요, 암호이며, “성스럽지 못한 자가 읽을 수 없는 신비에 찬 공식”인 것이다.³⁹

권능과 신권의 열쇠는 “콥트스해의 한 가운데 있는 쇠상자를 열면 나무 상자가 있는데 그 나무 상자를 다시 열어, 상아와 흑단 상자를 꺼내고 이것을 다시 열어 금 상자를 꺼내고 그 속에서 다시 꺼낸 책”이다.⁴⁰

가장 오래된 책으로 알려진 사바코 스토크는 우리가 생각하듯 원시적인 체계 없는 말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말일성도에게 친근감을 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것은 이집트 제1왕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행해진 의식의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 천국 회의, 창세, 인간의 타락, 부활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최고의 영광에의 복귀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다. 가죽 두루마리로 된 이 책은 첫왕인 메네 왕 때에 그 신전 벽에 감추어진 것으로, 25대 왕 사바코가 발견하여 의식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그의 왕조를 확립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1. 소 존 리어, 세터데이 리뷰, 1970년 1월 10일, 99페이지, 인구와 공해 문제
2. 조셉 필딩 스미스, 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멜기세덱 신권반 교재 1972년도) 4페이지
3. 초기 유대인의 위경은 아담과 문자와는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나, 지면상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만물이 문자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유명한 유대 교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아담은 예언집





111 : 24에서 "4문자로 된 아담"이라고 불리웠다.

4. 알 오 포크너, 고대 이집트 피라밋 텍스트(옥스포드, 1969년) 510 : 1146

5. 이 아담이 아담과 동일 인물이라고 유명한 이집트 연구가 이 레페부어가 주장함. 경전 고고학 협회 발간물 9 : 174ff, A. Moret, *Historie de l'Orient*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1945), 1, 209f.

6. 고대 이집트어는 자음으로만 쓰였다. 모음은 말에는 사용되었으나 글로는 쓰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자음만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Reproduced by J. Capart, "Exaltation du Livre", in *Chroniques d'Egypte*, 41 (1946), 25p.

8. Below, note

9. W. Englebach, in *Annales du Service*, 42 (1942), p. 197.

10. 제이 카파트, 이집트 종교와 동양, 1(1930) 117페이지

11. 더블류 비 에머리, 과학 미국, 197 (1957) 112페이지

12. K. Sethe, "Vom Bilde zum Buchstaben", Vol. 12 of *Untersuchungen zur Gesch. u. Altertumskunde*, reprint Hildesheim: G. Olms, 1946, pp. 27-28.

13. A. Scharff e.A. Moortgat, *Aegypten u. Vorderasien im Altertum* (Munich: F. Bruckmann, 1951), p. 46.

14. 프랑크푸트, 문명의 탄생 (런던 1957) 106-7페이지.

15. A. David, in *Archiv Orientaini*, 182 (1950), pp. 51-54.

16. 비 로즈니, 고대 서아시아사(프레이크 : 아르티아), 116-7페이지

17. J. Jordan, in *Archiv for Orientforschung*, 6 (1930/1) p. 318.

18. P Mordell, in *Jewish Quarterly Review*, 2 (1911/2), p. 575.

19. E. Massoulard, *Prehistorie et protohistorie d'Egypte* (Paris: Institut d'Ethnologie, 1950) p. 323f.

20. E. Doblehofer, *Voices in Stone* (N.Y.: Viking Press, 1961), p. 22.

21. Sethe, op. cit., pp. 24-25.

22. 같은 책, 9페이지

23. H.J. Lanzen, in *Archaeology*, 17 (1916), I, 51.

36. e.g., i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19 (1966), pp. 603-7, and 4(1951), pp. 235-8.

37. Pap. Salt 825A, in A. Gardiner, in *Journal of Egyptian Archaeol.* 24 : 167.

38. Heliiodorus, *Ethiop.*, I. 28; H. Grapow, *Hieroglyphen*, p. 13.

39. E. Drioton, *Le Livre de jour et de la nuit* (Cairo: Inst. Fr. Arch. Or. 1942), p. 86.

40. F.L. Griffith, *Stones of the High Priests of Memphis* (Oxford, 1900), p. 16.

41. K. Sethe, *Dramatische Texte zu altaegyptischen. Mysteriespielen* (Leipzig, 1928), 1, 5, 8. (1964), p. 125.

24. 에스 위시번, 과학 미국, 1960년 9월 63페이지.

25. 더블류 에프, 페트리, 스미소니아 보고, 1918년, 588페이지

26. 같은 책 568-9페이지

27. A. Von Mulinen, in *Zeitschrift der Deutsch- Palastina- Veren*, 47(19), pp. 90, 88.

28. J. Smolian in *Numon*, 10(1963), p. 203 : citing as examples fire, wheel, wagon, architecture, ships.

29. 조셉 에프 스미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47년) 54페이지.

30. N.H. Jur-Sinai, in *Archiv Orientaini*, 17 (1949), p. 433.

31. So Hermes Trismegistus, I, pp. 406-7, in T. Hoptner, *Fontes Histoniae Religionis Aegyptiacae* (Bonn. 1922-4), p. 393.

32. Text in H. Brugsch, in *Aegypt, Zeitschrift*, 10 (1872), pp. 1-4.

33. G. Widengren, *The Ascension of the Apostle and the Heavenly Book* (Uppsala Univ. Aarssknift, 1950-7), p. 21.

34. 모세서 7 : 67,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질문, 5페이지

35. A. Jeremias, *Das Aite Testament, im Lichte des Alten Orients* (Leipzig, 1916), I, 51.

36. e.g., i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19(1966), pp. 603-7, and 4(1951), pp. 235-8.

37. Pap. Salt 825A, in A. Gardiner, in *Journal of Egyptian Archaeol.* 24:167.

38. Heliiodorus, *Ethiop.*, I. 28; H Grapow, *Hieroglyphen*, p. 13.

45 페이지에 계속

성구를 찾아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함

로버트 제이 매튜스

974년 8월호



경전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주님께 간구하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리라.”(교리와 성약 112:10)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태복음 7:7-8)

이것 만으로도 그 뜻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나, 생활과 경험과 다른 경전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단지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3) 상당한 탐구와 선견지명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가 원했던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하리라...”(교리와 성약 9:7-9)

이 원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데

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아내를 찾아 데려 오는 일을 그의 종에게 맡겼습니다. 종은 이에 묘안을 강구해 내어 주님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가 우물에 내려 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 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 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리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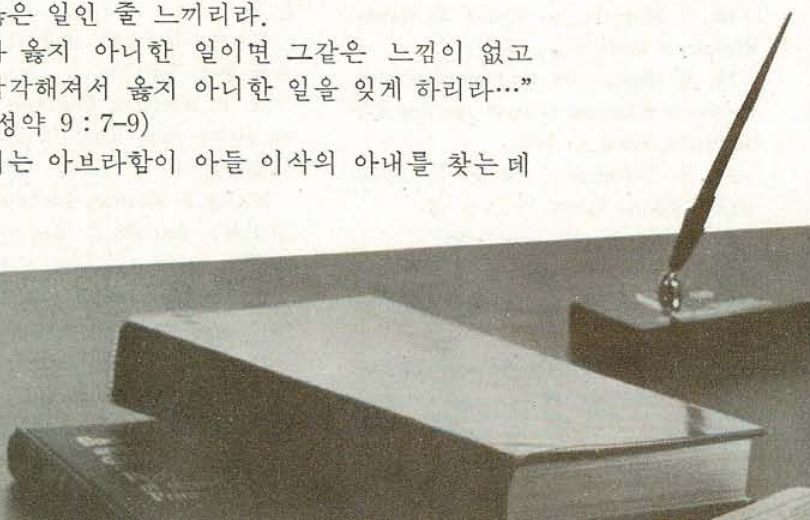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마시게 하리이다 하니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창세기 24:12-21, 26)

총독인 느헤미야가 그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그는 “중심에 계획하고”(느 5:7)라고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주 주님께 간구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먼저 마음 속으로 일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벳의 동생이 주님께 간구했던 것도 마찬가지로의 예라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보소서 당신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배를 지었사오나, 보소서 그 안에 빛이 없나이다. 오 주님이시여 저희로 이 대해를 암흑 중에 건너게 하시겠나이까?” 주님은 이 예언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고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배 안에 빛을 있게 하도록 내게 청함이 어찌이나?” 이에 예언자는 “높은 산에 올라 작은 돌 열 여섯 개를 꿰어 내니... 회고 깨끗하였더라. 저가 ...또 다시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 당신의 손가락으로 이 돌을 만지시어 이 돌로 암흑 중에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진정 이 돌이 우리가 마련한 배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여...주리이다.” (이더 2:22-23; 3:1, 4)

말일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범사에 일일이 명령해야 함은 함당하지 아니하나니...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교리와 성약 58:26-28)

그러나 레이맨과 페뮤엘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니파이] ...저들이 다투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 알아 보고자 물었더니

“저들이 이르기를, 보라 부친은 ... 말씀하

셨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겠노라 하기로

“내가 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께 간구하여 보았느냐, 하였더니

“저들이 내게 이르기를, 간구하지 않았노라. 주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심이라 하는지라.” (니파이일서 15:6-9)

확실히 이들은 지식을 얻으려고 주님께 간구하는 신앙이 결여된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노력도 들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니파이는 그들이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니일 2:12, 모사 10:14 참조)

경전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우선 최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가 해결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올바른 과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한 다음에 이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해결 방법이 대낮의 햇빛 처럼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 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아갔느니라...” (니일 4:6)

기도의 응답은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지금 모든 것을 감당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임이니”(교성 78:18) “...너희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곧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게 명령하리라.”(교성 111:11)

그러므로 “열심히 구하며 항상 기도하며 믿으라. 만일 올바르게 행하면...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형통하리라”(교성 90:24) 圖

물몬일지

1974년 8월호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대로 사는 매일의 생활을 통해 얻는 값까지 경험은 모든 말일성도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체험담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받은 영감, 신권을 활용한 일, 또는 교회의 보조 조직에 관계되는 일로서 여러분의 간증을 더욱 굳게 해 준 체험담이 있으면 교회의 다른 여러 회원들에게 들려 줍시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번역 출판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유산

로잘리 버크

“하나님 이루시는 일 참 오묘하구나” 이 찬송가의 구절은 지난 3년 동안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꼭 3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까지 나는 물몬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종교가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나는 개척 유태교 가정에서 자라났으나 나의 종교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의 증조부, 증조모는 회람 정교 신자였지만 세월이 지난 후 우리 가족은 유태교의 믿음과 전통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나는 어스곳에서든지 위대한 창조의 힘이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이제 나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요행이 아니라 나를 위

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9년에 나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이혼했으며 그 때부터 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인생의 뚜렷한 목표도 없이 고독하게 새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한 해 동안에 모든 일은 악화되기만 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생에 대하여 만족할 수가 없었으며 나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물몬 선교사를 만나게 된 것은 이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도움을 구할 만큼 점손해지기를 기다려 나에게 도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매우 특별한 것이 내 앞에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태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의 간증이 완전하게 믿을 만한 것임을 알고는 물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마크 이 퍼터슨 장로님이 보스턴 스테이크를 방문하여 노변의 모임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나는 침례를 받아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나의 결심은 가족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족이 받은 충격은 불쾌함과 분노와

조소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절박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들과는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며 나는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만일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내가 침례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를 믿을 때 어떠한 해결책을 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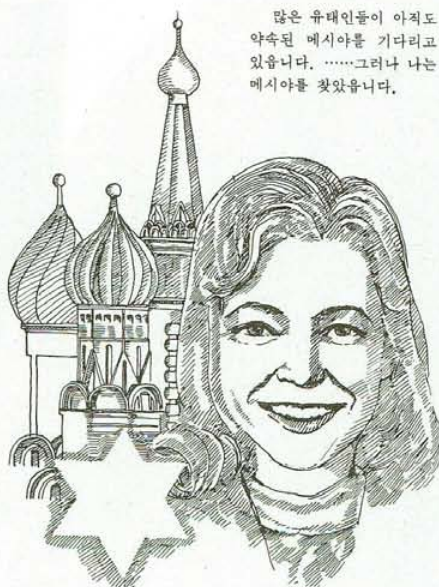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변호사와도 상의했습니다. 변호사는 나의 아이들을 절대로 잃지 않게 하겠다고 자신있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계획대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두 주일 후에는 부모님과도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부모님은 나에게 아이들은 침례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나의 아들이 여덟 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그 아이가 침례를 받고 이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받는 자리에 참석하여 그의식을 함께 지켜 보셨습니다.

나는 유태인의 혈통을 거부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지만 내가 이전에 속해 있던 교회에서보다 이 교회에 속한 이후로 유태교에 대하여 더욱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나의 혈통에 대해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의 유월절에 나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유월절 예배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나의 물몬으로서의 새 생활에 만족하고 계시다는 부모님의 눈에 비친 존경과 자랑스러움의 빛을 보고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지난 어느 때보다도 부모님과 가장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오묘합니다. 지난 주 나의 사촌의 약혼식 피로연에서 나는 어머니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몬이 된 자기 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교회의 장점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유태인들이 아직도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러나 나는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과 사랑과 우정의 의미, 인생의 참다운 의미, 그리고 나의 아이들을 기를 지침이 그것입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속했을 때 나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은 특별 이해반이었습니다. 칩례를 받고 한 달 동안은 칩례를 받았다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청소년과 기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란 것을 알았을 때에 나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때 나에게서는 또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독신 성인을 위한 새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특별 이해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조직된 반이라는 것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비활동적인 회원이 활동적인 회원이 되며 비회원이 이 반에서 발견한 사랑과 우정 때문에 회원이 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나는 우정이 생기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리라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메시아를 찾

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이며 그는 오늘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귀향

루이스 더블류 카틀

나는 17세가 될 때까지 교회와 가까이 하는 생활을 했으며 교회의 모든 집회에도 참석하고, 신권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나에게서 이와 같은 생활 이외의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했으며 교회의 프로그램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17세가 되었을 때 나는 십대의 독립에 대한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으며 가족의 지도에 반발하고 나의 "자유의지"를 요구했습니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나와는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권유에 따라 결국 술과 담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또 말일성도가 아닌 소녀와 사귀고 있었는데 곧 그녀와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주말에 그의 여름 별장에 나를 초대하였으며 이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교회 활동을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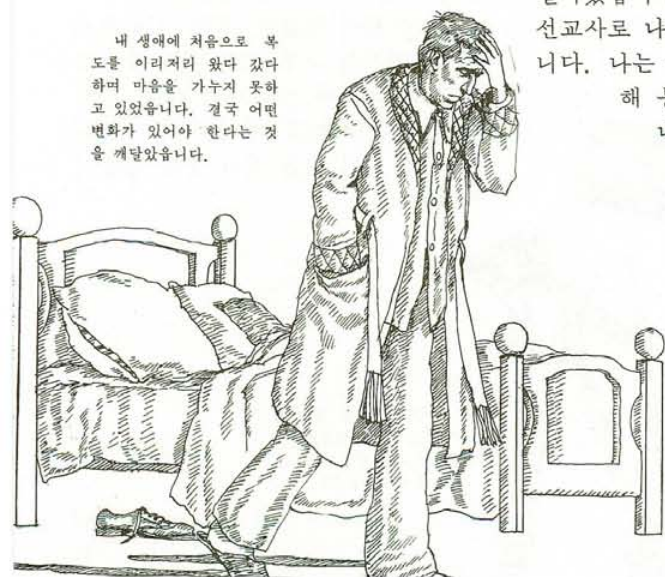
그러는 동안에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감독님이 나를 불러 선교사로 나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굳에 입대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나라를 위한 봉사의 중요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선교사로 봉사해야 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렵 나는 내가 존경하는 몇몇 교회 회원들이 교회의 표준을 모두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위선자였습니다. 나는 교회의 표준대로 살지 못할 바엔 교회에서는 표준을 가르치면서 교회 밖에서의 행동은 그와 다르게 하는 위선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큰 파오였습니다. 나는 내가 결정한 대로 행했으며 그것은 바로 적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해군 조종사로 4년을 그리고 판매업으로 15년간을 이곳 저곳으로 여행을 하다 보니 교회에서 비활동적이 되기는 더욱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긴 세월 동안에도 내 영혼에 깊이 뿌리박은 그 진리를 믿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 나이 38세가 되던 해에 나의 막내 동생 톰이 6주 동안 우리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그는 혼자서 신권회와 그 밖의 다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로 갔습니다. 나는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더욱 자주 나를 괴롭혔습니다. 이전 같으면 내가 원할 때에 담배를 끊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톰의 사무실에 자주 들러 그를 만나곤 했습니다. 그를 만나면 어쩐지 교회를 비판하게 되었고 그런 후에는, 동생에게는 아무 말도 안했으나, 으레히 죄책감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고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카텔 파티와 부도 시간을 마련한 시골의 클럽 모임에 참석하고 밤 늦게야 자리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내 생애에 처음으로 복도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을 가누지

내 생애에 처음으로 복도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껏 눈물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감정을 나타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음 순간에 무릎을 꿇고 19년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동안에 사랑과 행복감으로 나의 온 마음이 충만케 되었으며 성신의 권세가 나를 둘러 싸우는 한참 동안을 그렇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일어나니 마음이 밝아지며 감사한 마음이 내 가슴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애에 그와 같은 따스한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가슴 속은 마치 불이 불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곧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침실로 와서 아내를 깨웠습니다. 나는 아직도 울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나의 생애를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나의 뜻을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주저없이 나를 따르며 보필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한 번도 담배나 술이나 커피를 들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축복을 지금까지 주고 계십니다. 그후 1년 안에 나는 나의 아이들을 침례주고 그 후 곧 나의 아내를 침례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 우리는 로잔신전으로 가서 영원한 결혼을 했으며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인봉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잃은 양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모두에게 그의 사랑과 친절을 보여 주십니다.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리오 더블류 스펜서

60여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때 나는 채 열 두 살도 안된 소년이었지만 아버지를 도와 추수 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곡식단을 자르면 나는 그것을 한 묶음씩 길게 가리로 묶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곡식의단을 가리로 묶는 일을 시작해서 저녁 여덟 시 반 경에야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너무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저녁도 들지 말고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자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내려다 보시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리아, 오늘 내가 자른 곡식은 너무 영글지 않은 것이라서 월요일에 가서 가리로 묶는다면 곡식 알이 전부 말라서 오무라들 것 같구나, 오늘 밤에 그 일을 마쳐야겠어, 밖에는 아직도 달이 밝지 않니. 아버지를 도와 줄 수 있겠니?”

나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자 그럼 저녁을 먹자, 그리고 돼지 여물통에 먹이를 부어 주고 나서 일을 시작하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곧 빵과 우유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녁을 먹고 나서도 너무도 피곤해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돼지 여물통에 먹이를 부어 주기 위해 밖으로 나가시는데 나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담배도 피운 적이 없고 술도 마신 적이 없어. 언제나 지혜의 말씀을 지켜 왔지. 교리와 성약에는 만일 너희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피곤해서 고개마저 들 수 없지 않은가.” 나의 입은 피로에 지쳐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기 위해 일그러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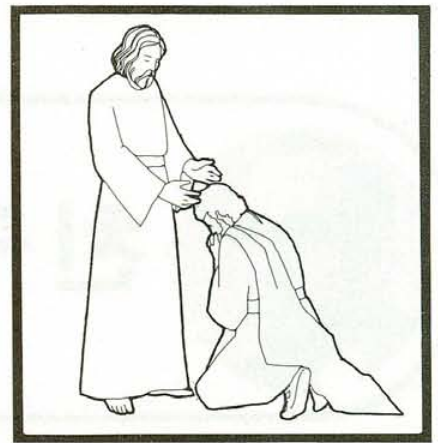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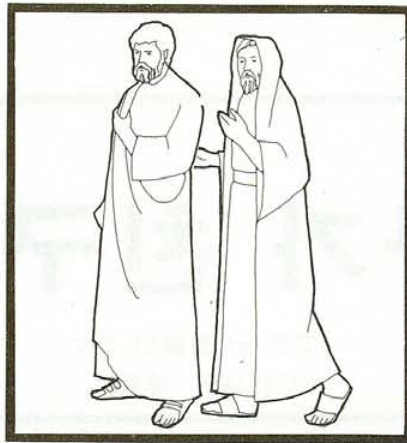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의 흰 빛 기둥이 나의 몸 속에 들어와 내 몸의 모든 섬유 조직의 구석구석을 다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 오시자 나는 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매우 빨리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버지도 일을 빨리 마치고 싶었지만 나를 따르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달려가 널려 있는 곡식단을 집어들어 다발의 한 쪽 줄에서 다른 쪽 줄로 던져 다발의 열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와 하시던 그 눈빛을 나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날 밤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는 그후 3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30년 전의 그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결코 그 밤의 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圖



아버지는 일을 매우 빨리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나를 따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

1974년 8월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기독교인들은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핍박 활동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온 마을 가가호호를 뒤지며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찾아 내었으므로 기독교인들은 그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어느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내려와 그의 주위를 비쳤습니다.

너무나 센 빛에 눈이 멀어 버린 사울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누시오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놀라움에 떨면서 사울은, “주여,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다소사람 사울

(웅판용 이야기)
사도행전 9:1-22

있느니라.”

사울은 알을 볼 수 없었으므로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흘동안 금식과 기도를 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그를 불러 “아나니아야, 일어나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듣사온즉 그가

많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는 나가서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신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다.”

사울은 곧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다메섹에 머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나 사울은 지식과 간증의 힘을 더 얻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치며 다녔습니다. 21



친구가 친구에게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성도들은 100여년간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불러 왔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로 온 세계의 수백만 성도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감사하는 경건한 기도로서 이 노래가 21개 국어로 번역되어 불리우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언자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근본 자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그의 자녀에게 그의 뜻을 펴신다는 확신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언자는 앞으로 올 일을 백성에게 경고도 하지만 진리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예언자는 인간이 행복과 화평을 얻기 위하여 걸어야 할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나는 여러 교회를 찾아 다녔어 보았으나 아무 곳에서도 예언자를 발견하지 못한 한 젊은이를 압니다. 유대인만이 아직도 예언자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을 안 그는 유대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1964년 여름, 그는 뉴욕에서 열리는 세계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물몬관에서 구약 시대 예언자들

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뜻을 펴보시기 위하여 도구로 삼으셨던 과거에 대한 예언자들에 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선교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물몬관을 두루 구경하면서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라고 불리우는 요셉 스미스 및 다른 현대 예언자에 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가 그의 마음 속에서 웅숭음쳐 울랐습니다. 그의 영은 선교사의 간증에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고, 후에 남아메리카에서 선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개종



시켰습니다. 귀환한 후에 그는 가족과 이웃을 교회로 개종시켰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이며 그의 뒤를 이어 이 높고도 성스러운 직책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말하는 그의 간증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봉사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 고마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그의 뒤를 이은 예언자를 역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생애는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택하셨고, 교화시켰으며 그의 영원한 계획을 수행하도록 만드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그들은 전능자인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준비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리 대관장을 이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도 리 대관장님처럼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노동의 의미를 알았으며, 선교 사업을 하였고, 교육을 받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는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깊고도 어두운 절망의 계곡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뒤돌아 보면, 모든 것이 그가 다른 사람의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 하나의 순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그와 접촉하고 그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고양시켜 준 위대한 영을 지니신 분입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교회의 어린이에게 좋은 친구이십니다. 대관장님과 가까이 있어 본 사람들은 그분이 어린이에 대해 갖는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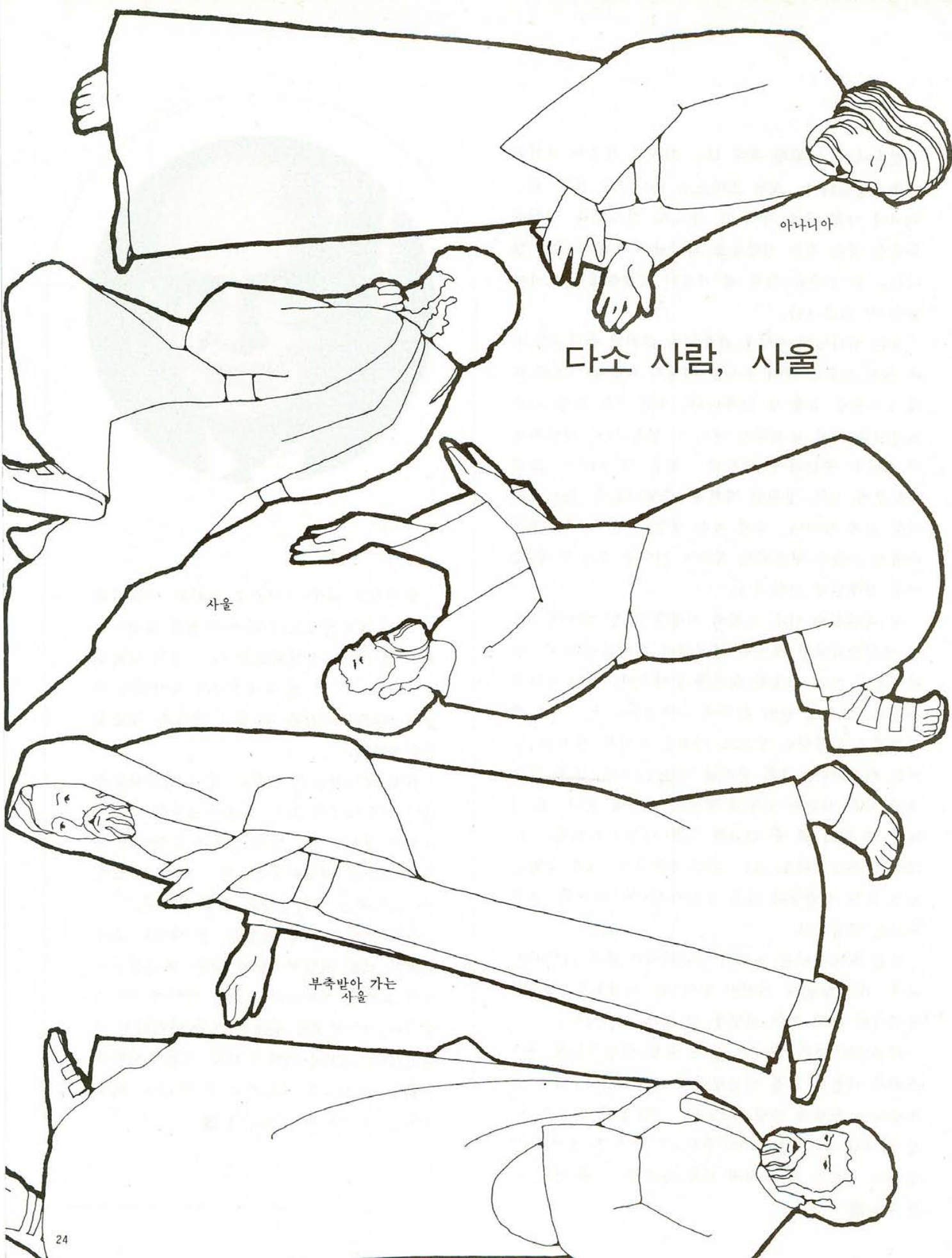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받은 특별 증인으로서 나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예언자의 부름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하고 온 세계의 성도들이 부르는 이 노래에 나의 음성을 더해 함께 부릅니다. 圖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언자요 제 12대 대관장으로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가 성임되고 성별되었습니다. 그의 보좌로는 해롤드 비리 전 대관장님의 보좌였던 엔엘돈 태너와 매리온 지 롬니 장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소년과 소녀와 그들의 부모가 성실할 때, 크신 축복을 그들에게 부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압니다.”

성도의 벅사 직원 일동은 온 세계의 소년 소녀와 교회 회원과 함께 킴블 대관장님과 그의 보좌를 지지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위대한 분들은 모두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보인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영감받은 지도자로 뿐 아니라 매우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합니다. 圖



아나니아

다소 사람, 사울

사울

부족받아 가는
사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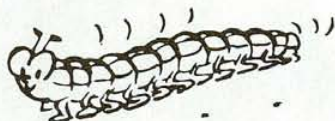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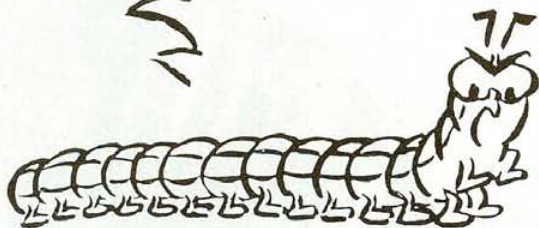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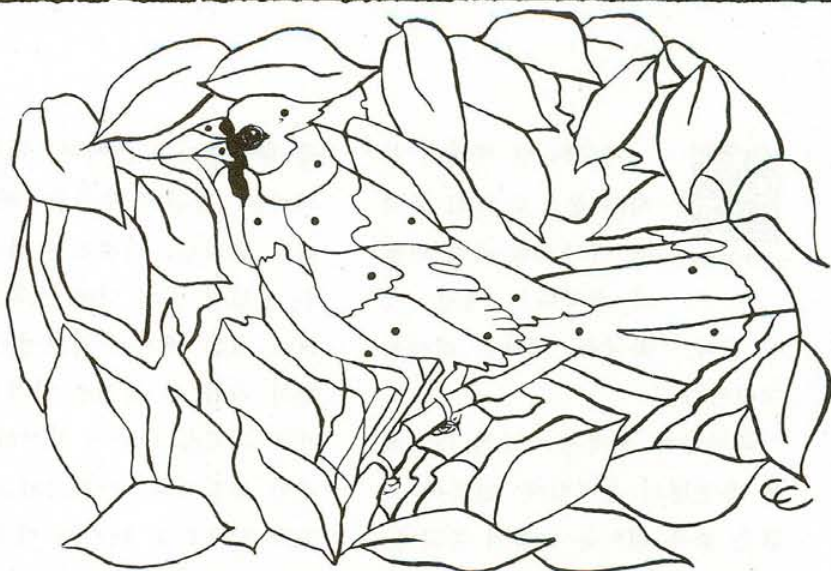
심심풀이

칸메꾸기

캐롤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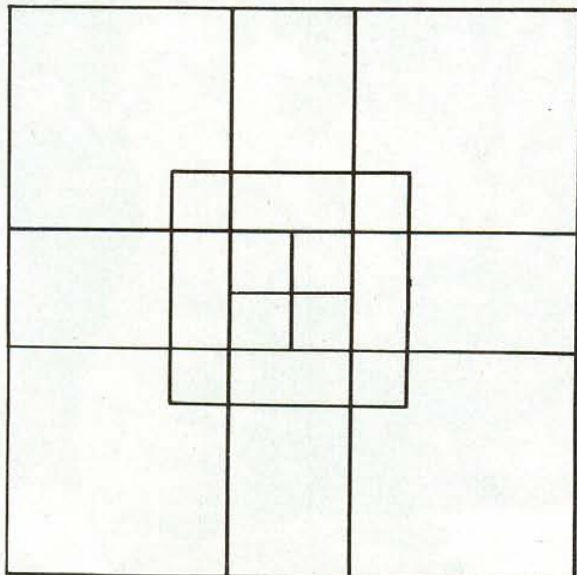
붉은 색연필이나 크레용을 사용하여 점이 있는 칸만을 색칠하세요. 해바라기 씨와 같은 벼를 단 새가 나타날 것입니다.

도판 용: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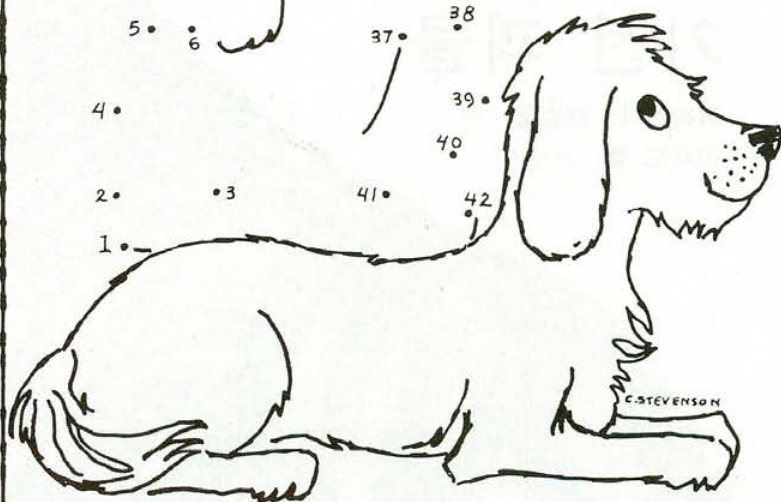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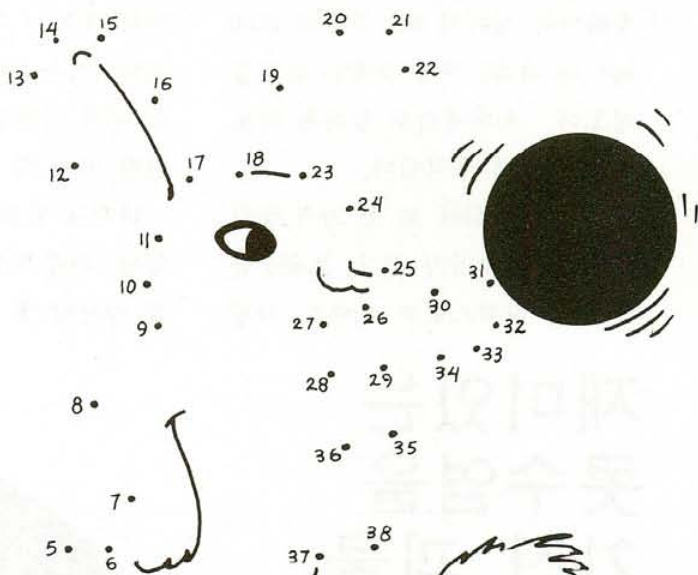


Paris

.....년 왜 건지못하고 기기만 하니?



이 그림에는 4 각형이 몇개나 있을까요? 주의해서 보세요. 보이는 것처럼 쉽지는 않으니깐요.



점잇기

샬롯 스티븐슨

지구의 맨 꼭대기 빙하와 눈으로 덮힌 북극을 이야기할 때면 의례히 생각나는 동물 셋이 있다. 북극곰, 물개, 해마가 그것이다.

북극곰과 물개는 피부가 매끄러운 유선형의 동물임에 반하여 가엾은 늑은 해마는 그렇지 못하다. 체구는 괴물같이 크지만(다 자란 숫해마는 길이가 4m 무게가 1120kg이나 된다) 수영 솜씨는 놀라운 정도다. 육지에서도 놀라운 속도로 민첩하게 움직인다.

해마에 대하여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해마가 바다 포유동물 중 가장 다정스럽고 실제로 사람

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어린 물개 새끼는 사람의 무릎을 베개삼아 베고 눕지만, 다정스런 새끼 해마는 사람의 몸에 기어 오른다. 그러나 새끼 해마는 자라면서 곧 인간이 가장 큰 적임을 발견하고 곧 경제 태세를 취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생김새와 마찬가지로 우직하게 행동하는 해마가 배우는 유일한 자기 방어법이다. 확실히 해마의 두뇌는 인간의 두뇌나 북극 지방에서는 가장 현명하며 해마의 두 번째 강력한 북극곰의 두뇌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대체로 점잖은 동물인 해마는 일단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잘 방어할 줄 안다. 해마의 피부

는 갑옷과 같이 단단한 각질로 되어 있으며, 날카로운 송곳니는 무서운 해를 입힌다.

이 동물을 잡으려는 에스키모에게는 특별한 용기와 기술이 필요하다. 북극 사람에게 있어서 해마는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주요한 동물이 된다.

재미있는 콧수염을 갖고 있는

재미있는 콧수염을 가진 괴물

머레이 티 프린글 글
리차드 헐 그림



이 괴물의 이용도는 매우 높다. 동물의 안팎과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에스키모가 이용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다. 쇠해마의 표피는 너무 단단해서 사용하기 어렵지만 암해마의 표피는 견고한 보우트 뚜껑의 자료가 된다. 해마의 살은 수개월간 먹을 식량이 되며, 커다란 체구에 들어 있는 지방질은 요리, 연료, 등화 및 식용으로 사용된다.

해마의 위는 물건을 담아 두는 그릇으로, 머리는 북으로 사용된다. 해마의 뽀족한 송곳니는 기구나 무기로 사용되며, 여기에 문각을 새겨 관광객에게 팔기도 한다. 이 송곳니들은 긴 단도처럼 생겼다. 오도베너스 즉 “치아로 걸어다니는 동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또한 해마는 실제로 그와 같이 다닌다. 이 괴물은 문자 그대로 송곳니를 곡괭이나 다리로 사용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송곳니는 무서운 무기로 사용되는데 북극곰이 이것 때문에 치명상을 입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해마는 이 송곳니로 조개와

갑각류 물고기를 끊어 모아 먹이를 삼는다.

인간이 해마를 마구 잡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이 동물은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몇몇 부락은 해마에 전적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에스키모에는 해마 사냥이 허락되었다.

해마는 내륙 깊숙히 들어가는 적이 거의 없다. 일년 내내 빙산 언저리에서 산다. 가을에 빙산이 남쪽으로 떠내려 가면 해마도 함께 간다. 이 동물은 무리가 함께 간다. 이 동물은 무리가 함께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이동한다. 해마는 얼음에 떠서 이동하기도 하고 수영을 하여 이동하기도 한다.

해마는 물에서 잠기거나 빠져 죽을 염려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그 이유는 목에 바람을 넣고 물 위에 뜨기 때문이다. 이때가 해마를 사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것 같으나, 실은 해마가 총에 맞으면 물 밑으로 가라앉아 찾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냥꾼들은 이 때를 피한다.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하더라도 1120kg의 거구를 육지로 올려 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총알이 빗나가더라도 하면 해마가 깨어 덤벼들지도 모른다. 물에서는 해마를 당해 낼 사람이 없으며, 북극곰도 해마는 당해 내지 못한다.

북극곰은 물개, 물고기, 해초 뿌리 등을 주식으로 삼으나 별미로 해마 새끼를 잡아 먹기도 한다. 다 자란 해마에게는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한다. 체구가 거의 북극곰의 두세 배는 넘기 때문이다. 곰이 물 속에서 해마를 공격하는 경우 대개는 곰이 죽거나 거의 익사지경에 이르게 된다.

에스키모나 북극곰은 해마가 물으로 나와 잠을 자거나 일광욕을 할 때 사냥을 시작하거나 공격한다. 커다란 흰 고양이와 같은 북극곰은 살머시 몸을 움직여 바위나 큰 얼음덩이를 집어 들고는 적의 머리에 내던진다. 곰이 바위를 던진다는 것은 마치 옛날 이야기 책에나 나올 이야기 같지만 북극에서는 늘 행해지고 있는 일이며 여러 번 목격한 바도 있다.

북극의 황무지를 고향으로 삼는 동물이 백설의 북극에서 살아 남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해마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굶주린 인간과 교묘하게 바위를 던지는 북극곰은 해마의 일생을 우울하게 만든다. 그러나 어린 해마는 늘 즐겁고 걱정이 없다. ㉔



십일조의 축복

신앙의 은사

974년 8월호

이 로버트 엘 심슨 장로는 뉴질랜드의 마오리 형제

의 신앙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인적이 드문 곳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누추한 고기잡이 오막집에 선교사가 오자 마오리 형제는 서둘러 봉투를 찾아서는 그 안에 푼푼이 모은 돈을 집어 넣었다. 그는 곧 봉투를 선교사에게 전했다.

봉투 안에는 그의 앞으로 선교부 사무실에서 보낸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영어를 읽을 수 없었으나 편지에 써 어 있는 숫자는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는 선교부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 양의 현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준비했던 것이었다.

선교사가 편지를 그에게 읽어 주자 그는 그 편지가 지난해에 낸 십일조 영수증이었다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참으로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주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그만한 돈을 기꺼이 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테드 헤닝거 그림



축복을 함께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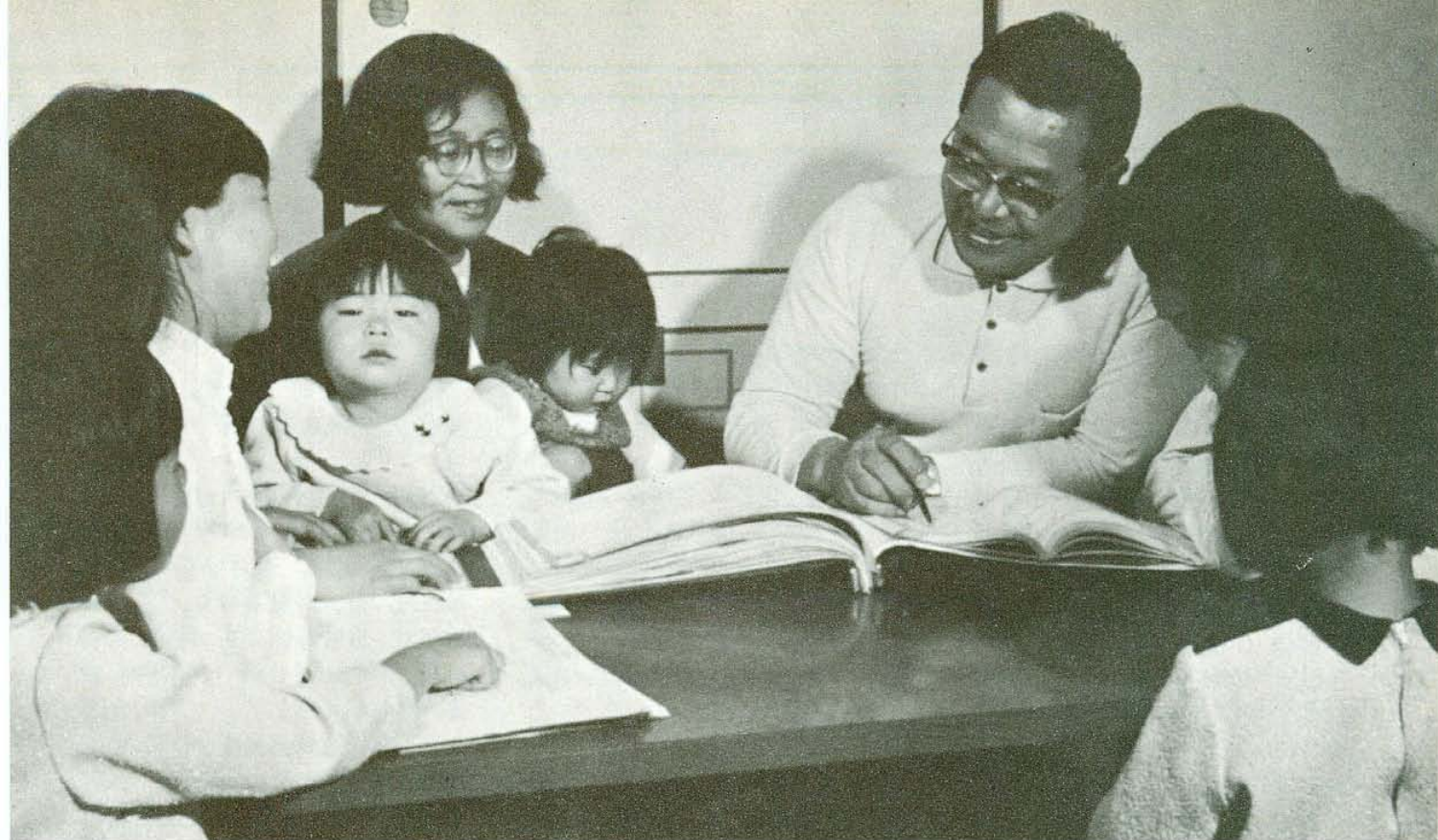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가 관리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을 당시, 그는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커다란 호박을 들고 가는 한 소년을 만났다. 리차즈 감독은 소년에게 호박을 무엇에 쓸려고 하는지를 물었다.

“제가 직접 키운 농작물의 십일조로 이걸 우리 감독님께 갖다 드리려는 참이에요.”하며 소년이 대답했다.

리차즈 감독은 소년의 이름을 묻고는 소년과 십일조의 중요성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가 십일조를 바쳐서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십일조의 축복을 얻게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며칠 후 리차즈 감독은 솔트레이크시티의 지역 창고를 떠나 그의 사무실로 돌아 오는 길에서 작은 마차에 짐을 싣고 있는 노부부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창고에서 배급받은 물건을 싣고 집으로 떠나려던 참이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마차에 그 소년의 호박이 있었다. 크고 못생긴 모양이 틀림없는 그 소년의 호박이었다.

소년의 호박이 이 노부부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리차즈 감독의 편지를 받은 이 소년이 얼마나 놀랐겠는가를 상상해 보라. 이 노부부는 어린 소년이 십일조를 바쳐 축복을 나눴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만찬을 들 수 있게 된 것이다. 圖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폴 에프 로알

1974년 8월호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말라기 3:16-17)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봉사하기로 성약을 맺은 자녀로 하여금 그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기억의 책에 기록하게 하고 그 책에 기록된 것에 따라 그의 충실한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무한한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부모”라는 책임을 가진 사람으

로서, 자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신앙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옛날의 부모도 다름바 없다. 그들도 역시 그들의 자녀가 예언자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명한 자들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하였다. 물론경에 기록된 리하이의 말씀은 가장 값진 예언자적인 지혜의 말씀 중의 하나이다. 임종시에 그는 그의 자녀를 불러 모아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조언과 지침을 주셨다. 이 축복사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셨으니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의 면전에서 잘려 떨어져 나가리라고 하셨느니

라.

“그러나 나의 아들과 딸들이여, 보라 너희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대로 무덤에 내려갈 수 없으리니, 보라 너희가 마땅히 양육되어야 할 절차를 따라 양육된다고 하면, 너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앎이라.” (니파이이사 4:4-5)

자녀는 들에 피는 꽃처럼 자라게 해서는 안된다. 자녀는 양육을 받고 인생의 올바른 길, 주님의 올바른 길을 배워야 한다. 기억의 책의 가장 큰 목적은 자녀를 의의 길로 양육하여 자녀에게 부모와 조부모가 지녔던 신앙과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과 주님의 방법을 알리는 데 있다.

물론경에 기록된 것으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이야기로 베나

민왕이 그의 백성을 모두 모아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때에 모인 무리의 수가 너무나 방대했으므로 그들을 모두 수용할 장소가 신전 주변에는 없었다. 기록에 의하면 각 가족이 천막을 치고 신전을 향하게 하여 천막을 쳤으며, 방은 단을 쌓아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의 음성이 미치지 않는 곳의 사람들에게도 그가 한 말을 알리기 위하여 말씀 내용을 기록하여야 했다.

베냐민왕은 그의 백성이 주님을 앎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들은 그의 말을 진실된 마음으로 들었으며, 영을 받아 곧 땅에 엎드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겠노라고 간증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영에 크게 감화를 입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는 악에 물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에 모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과실을 범하고 말았다. 이 사건을 당시의 예언자와 역사가가 기록하였으나, 백성들이 기억의 책에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자녀는 그와 같은 큰 경험을 조상의 언어로 배울 수 없었다. 모사 이야는 그의 부친 베냐민왕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장성하여 성인된 후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 아직 나이가 어리어 베냐민왕의 이야기를 알아 듣지 못한 세대가 장성하며, 저들이 그 조상들의 전언을 믿지 아니하여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강림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같이 저들이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저들의 마음은 강박하여졌으며

“침례를 받으려 하거나 교회에 속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저들은 저희 뜻대로 동떨어진 무리가 되어 육욕적이며 죄 많은 상태에 머물렀고 저들이 이같이 됨은 주 저들의 하나님께 간구하려 하지 않았음이라.” (모사 이야기서 26 : 1-4)

우리의 자녀 중에는 이와 같이 진리를 향하여 마음을 강박하게 갖고,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 하며, 저희 뜻대로 동떨어진 무리가 되어 육욕적이며 죄 많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는 자녀가 없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영적 체험을 가졌으나 자녀를 위하여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우리의 개종이나 혹은 신앙을 갖게 해 주었던 큰 사건을 믿지 않게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니파이이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하여 내가 기록한 것들이 보호되며 또한 보존되어 대대로 나의 후손들에게 전달될 것을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니, 요셉의 후손이 멸망되지 않고 세상이 있는 동안 땅에 거하게 되리라는 약속이 성취되리라.” (니파이이서 25 : 21)

이 성구에서 보면 물몬경의 기록이 바로 실질적인 기억의 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의 책을 경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니, 이는 이 책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

했다.

“...이를 갖게 될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록하여, 우리들의 자녀와 형제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권고하였음이요,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앎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자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니파이이서 25 : 22-23, 26)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는 짧은 문구가 곧 기억의 책의 목적을 말해 준다. 이 책을 가질 때 우리는 가족의 유대와 신앙을 파괴하려는 사람의 세력을 막는 강한 요새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구원을 받아 부활의 상태에서 종으로 있게 될 수 있다고 계시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승영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가족 단위가 언급되었다. 그렇다면, 기억의 책의 첫째 목적은 직계 가족에게 부여된 영원한 약속을 보이는 것이다.

신권 제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이미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말일성도 가정에서는 가족의 기억의 책이 표준 경전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 가족의 기억의 책은 신앙이 깊은 교회 회원의 자손에게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보조 경전이다. 기록된 가족의 간증과 영적인 체험 및 선조에 대한 제보를 자녀가 알 때, 자녀는 선조와 강한 유대 관계를 느끼게 될 것이고 가족 단위의 승영에 관계되는 교리를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성실한 가정이라면 기억의 책을 작성해야 한다. 이 안에는 가족의 이야기와 특히 영감으로 기록된 영적인 생활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책에는 가족의 제보가 포함되어서 자녀들이 선조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6년 4월 294-95페이지)

이상에서 언급된 사항을 가족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억의 책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야 할까? 첫째가, 가족의 가계도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 기록을 찾아야 한다. 이 가계도는 가족의 범위를 나타내 줄 뿐 아니라, 출생지까지 나타내는데, 조상자는 특히 이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억의 책에 포함되어야 할 다 음 부분은 가족 기록 양식으로, 가계도에 나타나 있는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된 것이어야 한다. 가족의 친족 관계를 알려면 이 양식을 보면 된다. 그러므로 가계도가 혈통을 보여주는 데 비해, 가족 기록은 가족의 조상을 나타내어 준다고 하겠다.

둘째, 이 책에는 가족 각 사람 즉 남편, 아내, 자녀의 개인 기록이 있어야 한다. 복돋을 수 있는 경험은 모두 이 개인 기록에 기재

되어야 한다. 자녀는 그들과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켜 생각해 보게 해 주는 이 개인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족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개인 기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는 가족의 결속을 보다 돈독히 해주었던 사건을 기록해야 하며, 선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축복을 받았던 일을 비롯하여 축복을 받았던 때와 시련을 당했던 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자녀를 위하여 기억의 책을 기록한다. 기억의 책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거처게 되는 생활의 단편을 모아 놓은 스क्र랩북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사건을 모은 것이라야 한다. 에녹이 말씀하신 기억의 스क्र랩북을 의미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책에서 사진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마른 장미잎을 책갈피에 끼워 놓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자질구레한 장식품이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 책은 그에게 조상에 대한 지식과 조상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준 책이다.

알맞게 편집된 기억의 책은 가족에 관하여 어떠한 조사 작업이 행해졌는가를 알려 주고, 앞으로의 작업을 제시하여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 신전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해준다. 교회의 프로그램에 따라 각 개인의 이름을 신전에 제출할 수 있게 된 오늘날, 체계적인 기억의 책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조상의 이름을 모

으고 그들을 위한 의식을 집행한 후에는 가족 기록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리되어 전 가족을 위한 사업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기억의 책을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손에게 신앙의 기록을 남겨 주어 그들이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행복과 기쁨, 고난, 고민 등을 범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의 책에서 가족의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기억의 책이 유일한 도구이다. 그러나 그 도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는가?

가족 각 사람의 기억의 책은 값비싼 것일 필요가 없다. 각 와드에는 기억의 책을 만드는 재료를 구하는 데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신권 지도자가 있다. 대제사 그룹 지도자가 이와 같은 임무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룹장과 정원회 회원은 교회 회원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데 필요한 도움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기억의 책은 행복하고 조화있는 가정 생활을 창조해 준다. 나는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는 바이다.

로알 형제는 10년간 제보협회의 전체 서기로 봉직하였으며 파이오니어 스테이크에서 고등 평의원으로 5년간 수고하였다. 현재 그는 솔트레이크 스테이크 커피 톨힐 제2와드에서 복음 교리반을 가르치고 있다. ㉠

하나님의 사업을 정결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1974년 8월호

형제 자매 여러분,
또 다시 4월이 돌아왔
습니다. 4월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
생하신 달입니다. 구세주의 탄생
을 기념하는 4월 6일에 우리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제
144차 연차 대회를 갖고 있습니
다.

우리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을
지도자로 모시고 세 번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애석하게 생각
합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재능
과 힘과 용기를 지니셨고, 늘 주
님의 지시를 따르신 분이었습니
다.

12월 26일 이후로 우리는 그분
을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정복할 수 없는 산맥에 가
장 높이 솟은 봉우리와의 같은 분
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생
을 위해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
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추모하여 지은 조 엠 사
자매의 시를 낭송하면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겸손하고 진
실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리 자매님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을 추모함.

예언자는 가셨습니다.
그의 무덤가에 선 하나님의 성
도들은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도 울었습니다. 흐르는 눈
물이

겨울 잔디를 적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예언자임을
알지 못했기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
하고

한평생을 살다 간 사람도 많았
습니다.

그분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손길을 만져 보지도 못했으나
그분의 온화한 자비를 알고
위안을 얻은 사람들이 많았습
니다.

또한 예언자와 가까이 있어
그분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
며,
그분의 친절한 사랑을 느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에 축복을 기원합니
다.

내가 울고, 하늘도 울던
12월 어느 슬픈 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함께 했으면 하
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
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모든
일을 굳건히 밀고 나가는 것 뿐입
니다.

기자 회견을 할 때면 의례히 다
음과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대
관장님, 교회의 지도권을 물려 받
으신 대관장님은 이제 무엇을 하
실 예정입니까?”

나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
로 일하던 30년간 현재의 광범위
하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
고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참여해
왔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앞으
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
하지 않으며 다만 기존 프로그램
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
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
리가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고,
프로그램을 공고히 하며 정책을
재확립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는 급속한 발전입니다. 최근 수
년 동안 교회 회원의 수가 배가
된 것을 보면 회원의 증가는 놀랄
만한 속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30년전 회원의 수는 십만을 헤아
리는 정도였었습니다만 현재는 3백
만의 회원이 온 세계에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여러 스테이크를
방문했던 1943년에는 146개의 스
테이크가 있었으나, 현재는 635개
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1943년
당시에 38개였던 선교부는 107개
로 늘어났습니다. 1943년에는 해
외에 스테이크가 없었으나 현재는
70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

없는 성장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반면에 상당한 문제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숫자는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보여야 할 점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야 한다는 사

각해 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로 일반 시민으로서 갖는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말일의 경륜의 시기 초에 주님께서는 그의 회복된 교회는 정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 말씀하셨습

것으로 인정되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는 입헌 국가의 법률인 그 법의 편을 드는 너...를 정당한 줄로 인정하느니라.” (교성 98 : 4-6)

이 말씀에 입각하여 교회는 후에 이것을 신앙개조의 하나로 적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 (신앙개조 12조)

1835년에 개최된 교회 일반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부 및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소신 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부가 정부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관리 및 장관을 요함을 믿으며 공평과 정의로써 법률을 집행하는 인물은 공화국의 경우 백성의 투표로써 기타의 경우에는 주권자의 의지로써 공직에 등용되며 지지되어야 함을 믿는다.” (교리와 성약 134 : 3)

1903년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자체]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원은 마음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3년 6월호 626페이지)

1951년에 열린 10월 대회에서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단합을 해치는 요인들이 정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논쟁에서부터 발전되어 개인적인 적개심으로까지 연결되어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평등, 정의, 자유와 청렴결백한 공무원,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대민관계에서 그들이 보일 성실한 의무 이행에 기초를 둔 훌륭한 정부의 제원리를 옹호해야 할 권리를 가지

실에 있습니다.

1974년의 주요 목표는 급속히 증가되는 회원들을 위해 훈련된 지도자를 양성하고, 회원으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와 관계되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생

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제 진실로 나는 너희에게 국법에 관하여 이르노라... 입헌적이며 권리와 특권을 유지시켜 주는 자유의 원칙을 옹호하는 국가의 법률은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것이요, 내 앞에서 정당한



고 있지만, 개인의 선택과 집단 가입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 대표자로 뽑힌 사람이 이러한 원리와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면 그는 실로 권능과 자격이 없이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 대회 보고, 1951년 10월 114-115 페이지)

이 말씀은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교회의 입장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모든 말일성도는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의 국법을 지지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교회의 전례없는 성장과 함께 다음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높은 산맥, 넓은 계곡, 뜨거운 사막, 깊은 대양의 세상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답습하고 있는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요한1서 2:15-16)

우리 삶에 파고 드는 세상적인 온갖 유혹은 참으로 무서운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여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사야 13:11)

사탄은 주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 가서는 다음과 같이 악

속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 4:9)

“이 모든 것”은 악과 죄와 세상적인 쾌락과 육욕적인 유혹의 구덩이를 뜻합니다.

오래 전에 주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정확하게 만드시고 발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 1:39)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하나니, 이로써 모든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영생 곧 불사불멸의 영광을 누리느니라.” (모세 6:59)

바울은 육신의 일을 이렇게 열거하였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딤후 3:1-3)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악을 도모하는 자요...” (롬 1:26, 27, 30); 강도요, 술주정뱅이요, 강탈자가 되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4)

이 외에도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 17:15)

이 기도문은 우리가 늘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교회의 회원을 의로움 속에서 성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한 범범을 바울은 “귀신의 가르침”이라 하였으며, 범범자를 “미혹케 하는 영”이라 하였습니다. (딤후 4:1)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악해지고, 묵인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 4:7)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확인을 하고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께 “거룩한 곳에 서라” (교성 45:32) 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창세부터 있었던 오랜 교리입니다.

세계의 여진과 연장되어 가는 악의 그림자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교성 38:30) 고 말씀하셨으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 (요 14:27)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지침을 얻으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얻기 위해 우리는 지도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형제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영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생의 목적을 줍니다. 이것은 행복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님은 주님께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생명과 빛 영원한 곳
하나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시려고
길 예비하셨네”(말일성도 찬송가 203장)

가족은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손을 사랑합니다. 모든 도덕률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밝혀 준 길은 젊은 남녀에게 청순한 구혼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지닌 종이 영원한 단위로 인봉하는 제단 앞에 서도록 이끌어 줍니다. 회브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고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을 멸시하거나 늦추거나 금하는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결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극히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처사입니다. 결혼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갖고 글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까지도 결혼을 늦추고, 결혼의 필요성을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에 속은 자들에게 우리는 정상 상태로 돌아 오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다운 행복의 지초를 이루는 결혼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심심풀이로 성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결혼이란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작가

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편 127:3, 5)

어느 누구라도 영광스러운 부모의 역할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되는 즐거움은 정상적이고 풍요한 삶의 기본을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 1:28)하신 계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말일의 경륜의 시기에 우리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는 저들[처녀]이 나의 계명에 따라 자녀를 낳고 땅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또 저들이 영원한 세상에서 저들의 승영에 들어가 인간의 영을 낳기 위하여 저[남자]에게 주어졌음이다. 이로써 나의 아버지의 사업이 계속되며 영광을 누리게 되시느니라.”(교성 132:63)

우리는 가정이 분열되는 것을 보고 손뼉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면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역사가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 2:24)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할찌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엡 5:22, 23, 25, 28-29)

이 말씀을 남편이나 아내되는 사람이 오해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끌어 가듯이 남자가 가정을 이끌어 갈 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행하여지는 이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거의가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혼은 약점이나 이기심에서 나오며, 그 결과 이혼한 당사자는 물론 사랑받지 못하고 찢어진 자녀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만을 주게 됩니다.

확실히 부모의 이기심이 극도에 달할 때 순진한 자녀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싸우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양친 중 한 사람만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좋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싸우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의 원인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기심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주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이혼자 중 일방이 도덕적으로, 불결했다는 이유가 90퍼센트나 됩니다.

부도덕은 완전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 죄에서 단 하나라도 비이기적인 속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두 사람이 모두 이기심을 버린다면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낙태가 점증하는 사회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낙태를 행한 죄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면목을 세우기 위하여, 괴로움과 불편을 덜기 위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낙태를 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와 같은 수술에 몸을 맡길 수 있으며, 혹은 금전을 지불하거나 수술하거나 수술받도록 종용할 수 있었습니까? 물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극히 드물니다. 우리는 낙태의 죄를 매우 큰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을 유발하는 이 완전 상태를 목격하고 있는 오늘날 낙태란 가증스럽고 죄스러운 일 중의 하나로 여겨져야 합니다.”(신권 공보, 1973년 2월 1페이지)

환각제에 관하여 “...교회는 습관성을 야기시키거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하며 도덕적인 표준을 저하시키는 환각제나 그와 비슷한 물질의 오용 및 남용을 철저히 금지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거하는 성스러운 집입니다. 이 성스러운 장막을 더럽히거나 부당하게 괴롭힐 때 그 결과는 뉘우침과 후회 뿐일 것입니다. 순

결을 지키고 몸을 청결히 가지십시오.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유 18)

베드로의 말을 빌어 우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11)고 권고합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을 더럽히는 불결한 노출이나 외설 잡지 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몸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애무하거나,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 간의 성관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이를 언제 어디서나 금지하였으며 이를 우리는 재강조하는 바입니다. 결혼한 사이라도 지나치거나 잘못 이를 행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합리화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실망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미국의 유명한 전도사 빌리 그레함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으로 말하고 이를 성스럽게 보고 잘 쓰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성간에 신체적인 자력을 두신 점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증식시키기 위함이며, 다른 하나는 남편과 아내를 참다운 하나로 만드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에게 내리신 ‘한 몸을 이루’(창 2:24)라는 명령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명령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과 관련해서 악을 말할 때 성이 본래부터 부패한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선한 것을 오용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것임

을 알기 쉽게 말해 줍니다. 성은 훌륭한 종이 될 수 있으나 무서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것보다도 사랑과 행복을 키울 수 있는 강한 힘이 될 수도 있으나 모든 힘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빌리 그레함, “성에 관한 성경의 입장” 리더스 다이제스트[1970년 5월] 118페이지)

모든 면에서 정숙을 지킬 것을 다시 권고하는 바입니다.

어머니는 성스러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 대관장단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어머니란 첫째 지체를 살다가 이 세상에 온 자녀가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둘째 지체에서 보이도록 그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보호하고 기르고 양육하는 데 헌신하면서 주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성스럽고 희생적인 역할을 맡아하는 분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둘째 지체를 흠 없이 지키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 지리라’(아브라함 3:26)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성스러운 역할은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간호원도 못하며 보모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나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는 어머니만이 온전히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또는 공공 복지를 위하여 어머니의 소임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려는 어머니는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

느니라' (잠 29:15)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녀에게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을 때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교성 68:25)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신성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봉사입니다. 이 성스러운 부름과 봉사를 존중하는 여인은 천사 다음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신앙과 지식과 성스러운 사랑과 신성한 의무를 주시어

여러분이 성스러운 부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와 어머니가 되실 여러분, 정결과 순결을 지키십시오.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후손의 마지막 세대까지도 여러분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십시오.”(“대관장단 메시지” 데저렛 뉴스 1942년 10월 5페이지)

하나님의 사업을 정결하고 의로운 중에 대담하게 수행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프로그램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것을 쟁취하는 길은 오직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나는 이것이 참되고 올바른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사랑하며, 그분의 위대하고도 영원한 사업을 앞으로 미는 미약한 도구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圖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4차 연차 대회 말씀

기도의 중요성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일보좌

8 월호 **행복** 바로 일년 반 전 이 자리에서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새로운 대관장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을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 지지하였으며 다른 총관리 역원과 본부 교회 역원을 지지했습니다.

리 대관장님은 보기 드문 정력적인 지도자이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짧은 재임 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갑작스런 서거에 매우 놀랐으며 애통함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에게 큰 보상을 주시고, 또 다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데려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 곧 존경하는 스펜서 더블류킴블 장로가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부름을 받고 성임되었습니다.

나는 킴블 대관장님이 말일의 이 시기에 교회를 인도하도록 주님으로부터 선택되고 예임되었던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간증드립니다. 그분이 이 높은 명예를 받아들이고 부여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

에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 차례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 대회를 통해 오늘 아침 이분을 지지하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보좌로 부름을 받은 것을 큰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판단력과 영감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함께 합당한 방법으로 대관장님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 세계의 교회 회원이 단합하여, 이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요 교회와 왕국의 대관장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모든 회원은 자신의 구원과 승명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너희는 요셉이 받은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교리와 성약 21:4-6)

주님의 지시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되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일에 초대 대관장으로 부름을 받고, 회원들이 이미 인용했던 말씀을 지시받았던 것이 불과 14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진리와 의의 대업을 수행하며,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우리는 구세주가 부활이라는 기적으로 죽음의 사슬을 끊고 무덤으로부터 부활한 몸으로 일어나신 날을 축하하게 되는 부활절을 맞이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와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씻고 부활하여 불사불멸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의 희생에 온 세계의 기독교인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드리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우며 온당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그는 또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의 기적, 그리고 그가 세상에 알리신 메시지에 대하여 오늘 대회에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 생활한다는 희망은 그분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는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혹은 직접 그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현 세상에서와 다음에 올 세상에서 기쁨과 성공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하는 방법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에 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에 보이려고 희망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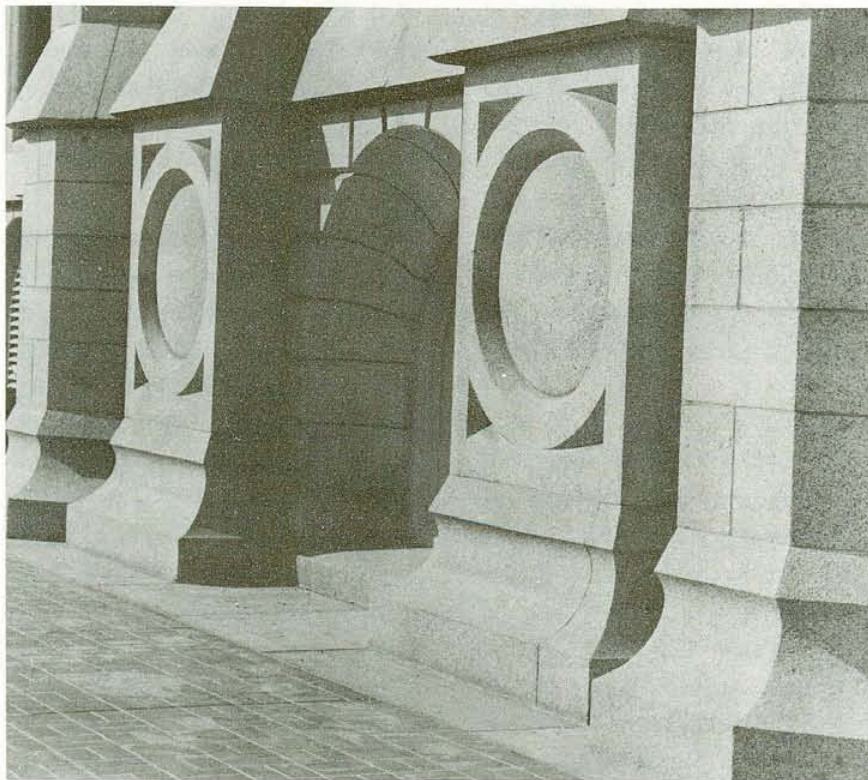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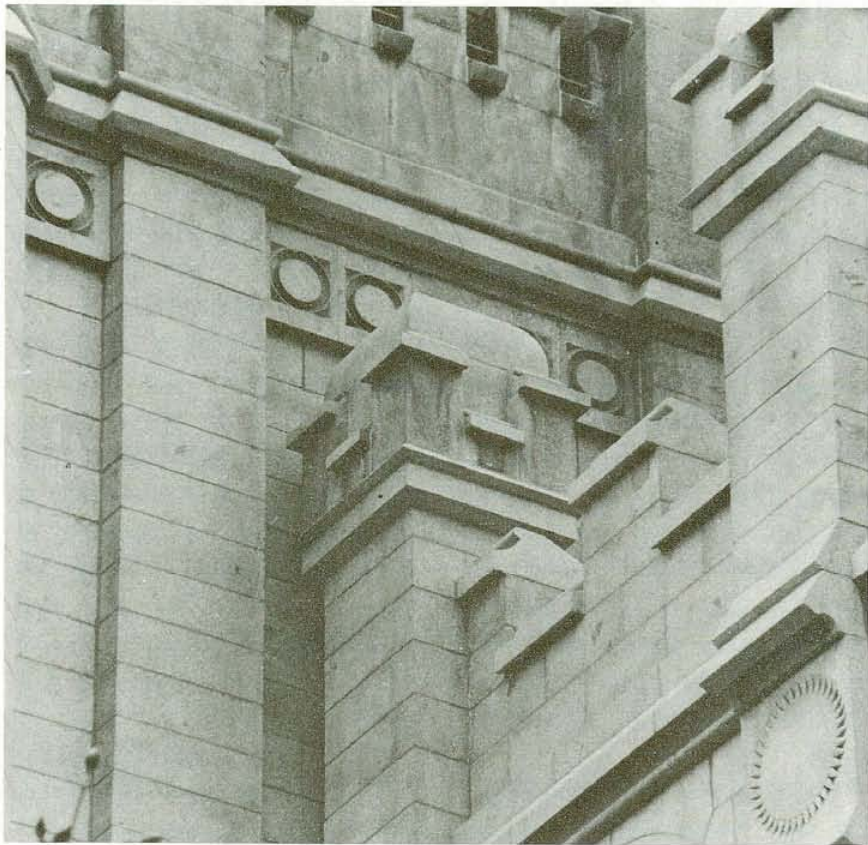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태 복음 6:5-7, 9-13)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도문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되풀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가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두고 하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심이며,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고 지침을 간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는 진실된 것이어야 합니다.

우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에 문을 잠그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에만 정신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기도의 말씀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며 모든 사람에게 그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게 허락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미리 약속을 하지 않고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



지계 가서 진실한 마음과 신앙으로 모든 영혼을 쏟으면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가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그의 영의 자녀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상 생활에서나 특히 예배드릴 때 거룩히 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의 이름을 성스럽게 함은 물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성스럽게 하도록 도와 줌으로써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가장 거룩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경건심을 보이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를 부르며,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그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 합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이 성취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며, 그 길이란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지상에 그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돕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는 그의 교회와 왕국의 기초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대로 생활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왕국을 높이 세우게 됩니다.

1831년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굴러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땅 위에 퍼져 그 주민이 받아들이길 수 있게 하라. 또 인자가 밝은 영광의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 올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여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원수를 굴복하게 하옵소서. 존귀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옵니다. 아멘”(교리와 성약 65:2, 5-6)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기 전에 우리는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부친께서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 일하는 게 좋을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된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을 “우리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모든 만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추리하고 배울

수 있는 두뇌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개발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며, 이것을 이웃과 나누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과 복지에 관한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권고를 받았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도움을 구하며 풍부한 삶과 훌륭한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표할 수 있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야 하며,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만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을 분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전과 예언자를 주셔서 가르치게 하셨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며, 그릇된 일을 하도록 유혹받는 곳에 처하지 않으므로 악에서 구원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와 같은 귀절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막 14:38)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하며 인자하고 유덕하고 남에게서 받고자 하는 대로 만민에게 행하기 위하여 용기, 힘, 욕망, 결단력 그리고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

음으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듯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이것들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면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악에서 구원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을 생각해봅시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귀절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귀절을 비교하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눅 11:4)라고 말했읍니다.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였읍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마가복음 11:25-26)

주님께서는,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교성 64:10)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흔번씩 일곱번 이라도 용서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주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불러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

하기가 쉬울 것이며,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충족할 열매를 가져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에 관하여 경전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11:25-26)

“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교리와 성약 64:9)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에게 “...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말씀하시므로써 용서의 참된 정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돌에 맞아 순교당한 스테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회개와 용서의 대원칙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원한이나 적개심을 갖고 있으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때, 그의 영혼은 부패되고 그의 내부에는 점점 큰 죄가 쌓이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졌던 사람이 후에 용기와 힘을 얻어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보이면서 화해하여 아름다운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함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가 구하는 왕국은 그의 왕국이고, 의는 우리로 인하여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가르침을 영생과 구원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며, 불사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진대 우리는 그의 이름에 영광을 가져 올 것이며 우리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 올 것입니다.

“아멘”은 앞서 말한 것을 진심으로 동의한다는 뜻으로 마지막 끝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아멘의 참된 의미를 나타내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켄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렸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6-39)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말일에 하신 주님의 말씀에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왕국을 받은 나의 교회의 백성들아,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여러 하늘과 그 모든 천군을 만드시고 살아 움직이며 실재하는 만물을 지으신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거듭 말하거니와 죽음이 너희를 몰아치지 않게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생각지도 않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 여름이 가고 추수가 끝나도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리니,

“아버지와 너희 사이의 변호인으로 아버지께 호소하는 이의 말을 들으라.”(교리와 성약 45:1-3)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달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지상에 기초를 세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생활함으로써 높이 세울 수 있게 되며,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이 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圖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4차 연차 대회 말씀

성신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이보좌

1974년 8월호

성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해 달라고 한 개회 기도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바로 이에 관한 것이므로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함께 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말이 단지 무익한 단어의 연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개조 제1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일년 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관하여 이야기했고, 육개월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신에 관해 밝혀진 진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전은 성신에 관하여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전은 성신을 보혜사,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또는 주님의 영이라고도 말해 줍니다.

경전에 의하면 성신은 사람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이 없으시고 다만 영적 존재시니라...”(교



성 130 : 22)

예수님은 성신을 남성 인격체로 보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한복음 16 : 7)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요한복음 16 : 13-14)

제임스 이 탈메지 박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성신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영과 니파이의 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성신은 예언자

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였으며, 인간과 얼굴을 대면하고 소망과 믿음에 관하여 묻고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그에게 지시하셨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처럼 나는 마치 사람에게 하듯 그분께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셨음을 보았음이며 그가 주의 영임을 알았음이라. 그리고 주의 영이 또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내게 말씀하셨느니라.”(성신에 관한 설교집, 엔 비 런던월 편집, 북크래프트사, 1959년, 13페이지)

제자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신이니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요일 5 : 7)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것은 목적에 있어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언자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셋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셋은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권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로써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셋은 신회를 구성하며, 하나입니다.”(브르스 알 맥콩키 저 물론 교리에서 인용, 북크래프트사, 1966년, 320페이지)

신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하나가 됨으로써 성신은 하나님과 아들과 같이 전지전능합니다. 그는 “사물에

대한 지식”(교성 93 : 24)을 가지고 모든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아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교성 88 : 12)듯이 성신의 “영향력, 권세, 은사는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행 11 : 15),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눅 1 : 15)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 : 38) “성령을 받으라”(요 20 : 22) “물과 성신의 침례”(교성 20 : 40)등과 같은 성구에서 말하는 성신은 인격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능과 영향력과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신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담에게 그가 드리는 희생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모세서 5 : 7)라고 말했던 날 “아담에게 성신이 임하”(모세서 5 : 9)여 하나님과 아들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침례받으실 때, 성신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마 3 : 16)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거나 이미 알았던 사람은 모두 성신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 : 3)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에는 이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복음 16 : 10-17)

성신은 하나님과 아들의 신성을 증거할 뿐 아니라 진리도 증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 10 : 3-4)

그리고 그는 커다란 약속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나이사 10 : 5)



거하며 특히 복음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너희로 이 기록을 읽게 하실 때에...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 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성신의 권세로써 복음이 진실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신은 진리를 증거할 뿐 아니라 진리를 밝혀 주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 : 15)고 예

* 역자주 : 성경 상에는 성신과 성령이 혼용되어 있다. 여기에서 성령이란 성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는 그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곧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 : 16, 26)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장은…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누가복음 12 : 11-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린도전서 2 : 12-13)

성신은 우리로 하여금 경전을 이해하도록 도와 줍니다. 성신은 경전이 담고 있는 복음 진리를 밝히 보일 뿐 아니라 예언자에게 계시의 영을 보냅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베후 1 : 20-21)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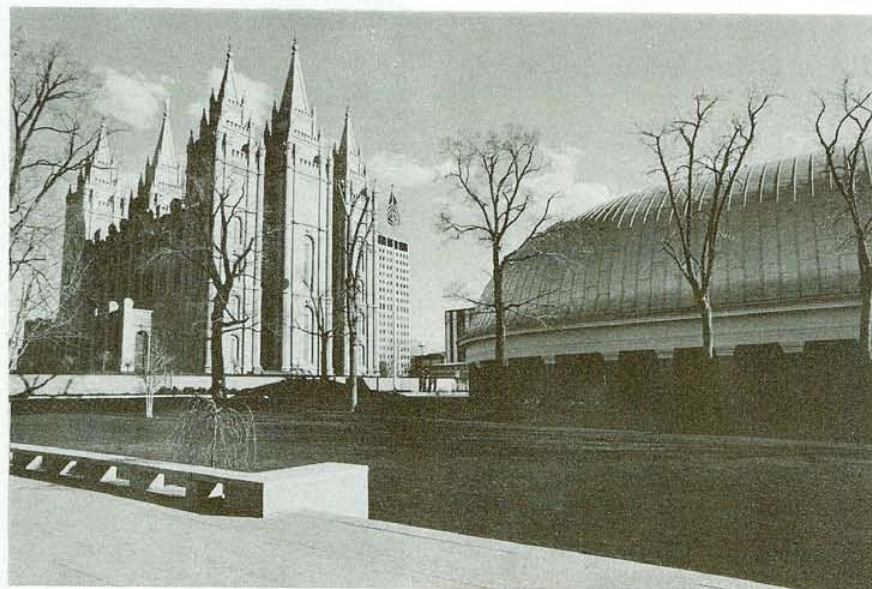
기록에 의하면 태초에 “아담에게 성신이 임하셨더라...

“그날에 아담은 하나님께 복을 돌리며 성신으로 찬탄하여졌고 세상의 모든 권속에 관하여 예언

하기 시작하였”(모세서 5 : 9-10)입니다.

그후로 이것은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눅 1 : 67)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로써...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교성 121 : 26)고 주님께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신 약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



를 받게 되는 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 줍니다.

지시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며, 죄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은 후 안수례에 의해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사도행전 8 : 14-17)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러 제자를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느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사도행전 19 : 2-6)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장로의 의무로써 주님은 “경전의 말씀에 따라 불과 성신의 침례를 주는 안수례를 베풀”(교성 20:41)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몇명의 형제를 선교사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 백성 가운데 나가서 베드로라 하는 나의 옛사도처럼 저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회개하여 거룩한 제명에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받으라.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누구나 교회 장로의 안수로 성신의 은사를 받으리라 하라”(교리와 성약 49:11-14)

성신의 은사는 하나님의 제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미치는 성령의 영향력과 영의 교화, 지침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인다우먼트입니다.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 하겠읍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미 언급한 불의 침례를 뜻합니다. (눅 3:16 참조) 이것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음에 말씀하신 “성령”의 탄생을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성신의 은사는 용서의 기적을 이루어 주며 죄로 병든 영혼을 고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 회원에 의해서 성신의 은사를 받는 점에서 다른 교회나 종교 단체와 구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

리스도 교회가 다른 조직과 다른 점입니다.

1839년 와싱턴 디 시에서 반 뷰렌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던 요셉 스미스와 일라이어스 히그비 형제는 하이람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읍니다.

“대통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떤 점에서 다르냐고 질문했읍니다. 요셉 형제는 침례 방식과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가 다르다고 대답했읍니다. 우리는 모든 다른 점이 성신의 은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교회정사 제4권, 42페이지)

그렇습니다. 이는 성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신의 은사란 “계시의 영이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를 인도하여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영이라”(교성 8:3)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회원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며, 그의 복음은 구원의 계획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증을 갖게 하는 것이 성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모두 진실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성신은 내게 그것이 진리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성신의 권세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우리가 그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복음은 진실하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교회이며,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이 교회를 관리하고

록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언자이며, 성신은 이 모든 것을 알게 해 주는 증인이요, 그의 권세로써 모로나이의 말처럼 우리는 “온갖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교회 장로의 안수로써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를 받고 성신의 지침을 따르기를 권고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구세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영접할 준비를 갖추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 가운데 오는 그날에 내가 열 처녀에 관하여 이야기한 비유가 성취되리라.

“지혜로워서 진리를 받아들이며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지 아니한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리워 불 속에 던지우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딜 것이요.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니 강하여지고 그 자녀들은 죄 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

“이는 주께서 저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요, 주의 영광이 저들의 왕과 입법자가 되실 것임이라.” (교리와 성약 45:5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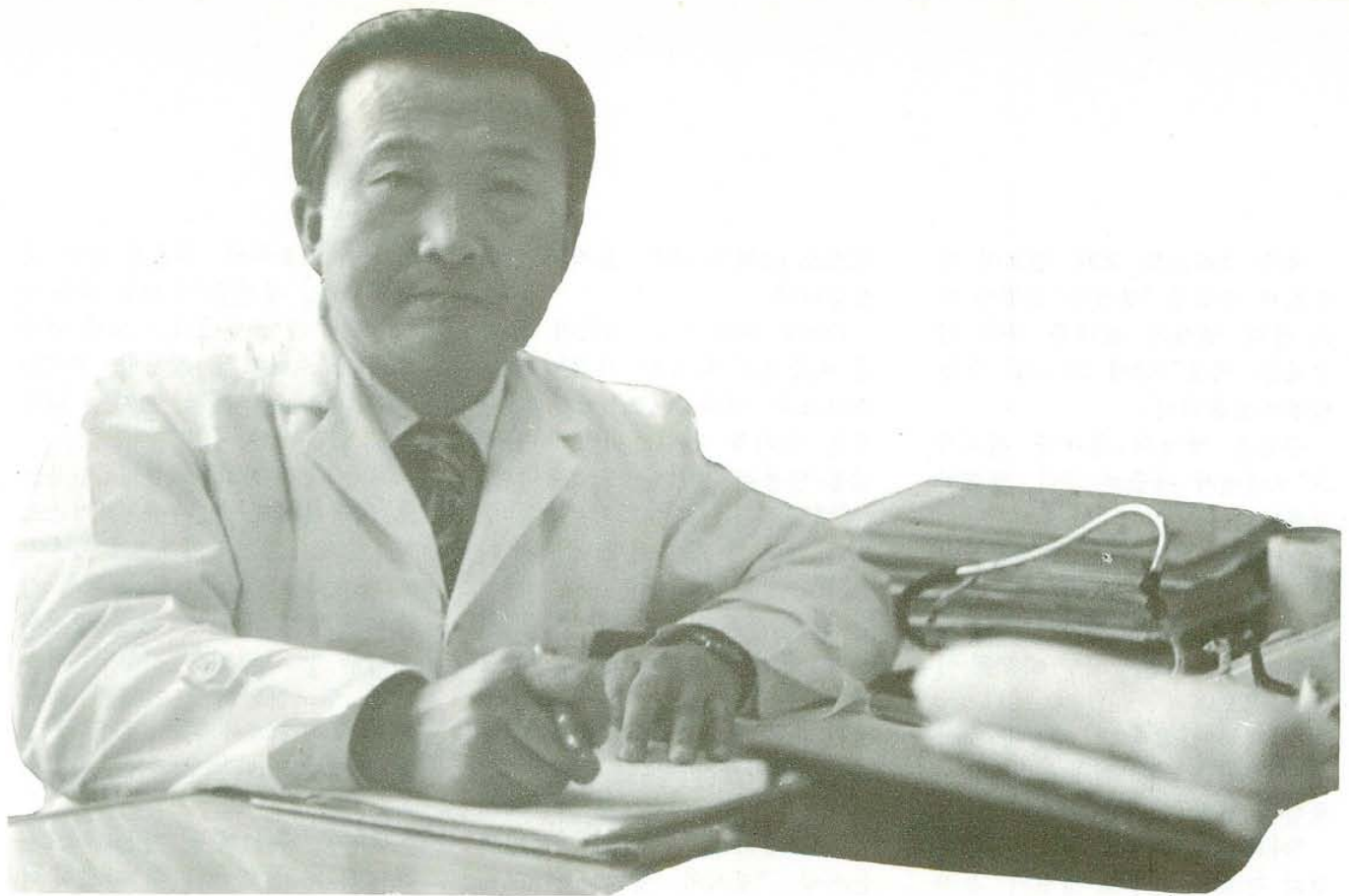
우리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준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圖

성도의 빛 성도의 빛 성도의 빛 성도의 빛 성도의 빛 8월호

39. E. Drioton, Le Livre de jour et de la nuit (Cairo: Inst. Fr. Arch. or., 1942), p. 86.

40. F.L. Griffith, Stones of the High Priests of Memphis (Oxford, 1900), p.16.

41. K. Sethe, Dramatische Texte zu altaegyptischen. Mysteriespielen (Leipzig, 1928), 1, 5, 8.



준비하는 생활

김 창 선
서울 스테이크 제1보좌

많은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종말이 가까와왔다」 「말세다」라고 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누구나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것이 하루사리가 불속에 뛰어드는 것을 방불케 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극악적인 살인, 세계적인 인구 팽창 문제 향후의 식량 문제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가깝게 피부로 느끼는 일들입니다.

과거에는 이데올로기의 대결로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적 대립, 즉 다시 말해서 고차원적인 사상적 추구의 현상이 차츰 과거의 형수 속에 접어들고, 이전 바야흐로 자원국가와 비자원국가라는 이데올로기의 경향을 떠나 경제적 차원에서 양진영이 분기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1973년 10월 중동 전쟁후 에너지 파동에서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수년 내에는 식량 국가와 비식량국가로 대립할것이 변히 예상되며 더 발전하여 식량난으로 인한 약탈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전에 저한테 치료 받으러 온 대학생이 있었는데 정신병으로 발병한 원인을 알아 본 즉 몇가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나타난것이 모 기성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1973년 크리스마스 파티 때 고-고-음을 추는데 춤을 추다 춤을 몰라서 소외감을 느끼고 차츰 교회나가기 싫어지고 친구 만나기가 싫어지게 되면서 정신 이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알아본 즉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성 교회에서는 고-고-춤 정도는 약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 말씀성도인 어려학생회원들은 고-고-춤을 춤출줄라도 교회에 나와서 건전한 모임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재미있고 유익하고 건설적 영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결코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고-춤을 춤출 때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욱불에 뭉뚱뜨거움을 피하는듯한 몸부림이라고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낚시터 바로 뒷전에서 북치면서 춤추는것을 본일이 있는데 끝절된 손에 기억자로 기브스를 하고도 춤추는 것을 본일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 받을때의 생각을 종종함으로서 새로운 자아의 깨달음으로 돌아 갈때가 있습니다. 천재 된다는것은 하나님앞에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겠다는 맹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거의 죄를 보상하겠다는 맹서로도 간주 됩니다. 과거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피 눈물나는 노력이 필요함니다. 하물며 주일을 지키고 교회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것은 기본적인 마음과 몸가짐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직결되는 생활 태도는 우리들이 누구나가 가져야 하는 기본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가 심판하시려 오시기전에 미리미리, 항상 준비하는 충실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88:84에서 「장자 성도에게 임할 심판의 때를 대비할 수 있게 할 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8:83에는 「일찌기 나를 구하는 자는 나를 찾게 될것이요, 버림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고 교리와 성약 19:3에는 「그 날에 세상 사람이 행한 업적과 행위에 따라 만민을 제각기 심판하리라」라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활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못되며 내가 과거부터 지금 이시간 까지 어떻게 살아 왔었느냐 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저이들은 깨달아야 할것이며 이것을 깨달았을때 나의 전 생애의 한순간 한순간이 전부가 중요한 것일니다.

